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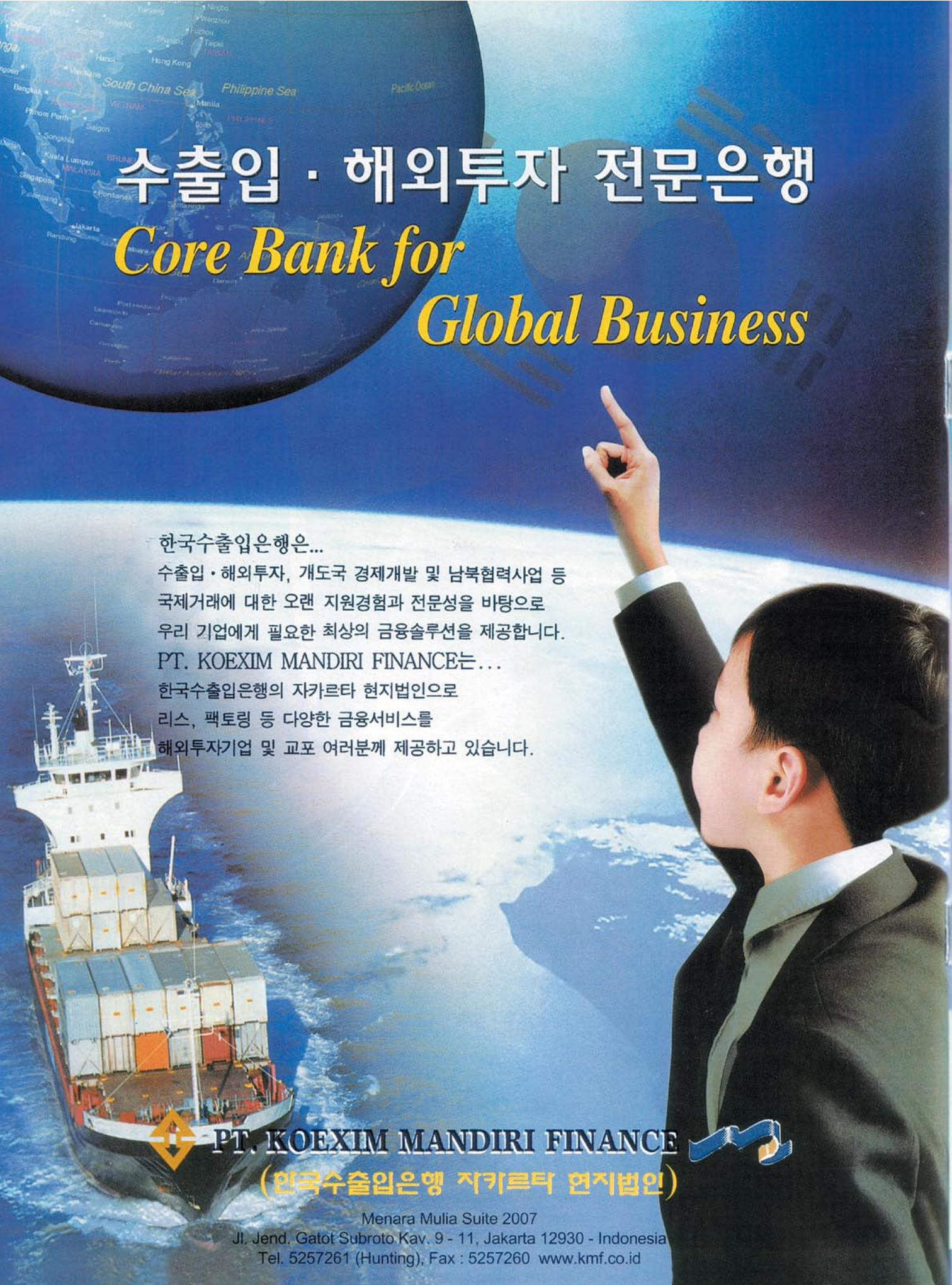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www.innekorean.or.id



2008· 2

통권 140



수출입 · 해외투자 전문은행

Core Bank for Global Business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 해외투자, 개도국 경제개발 및 남북협력사업 등
국제거래에 대한 오랜 지원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T. KOEXIM MANDIRI FINANCE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카르타 현지법인으로
리스, 팩토링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해외투자기업 및 교포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PT. KOEXIM MANDIRI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 자카르타 현지법인)

Menara Mulia Suit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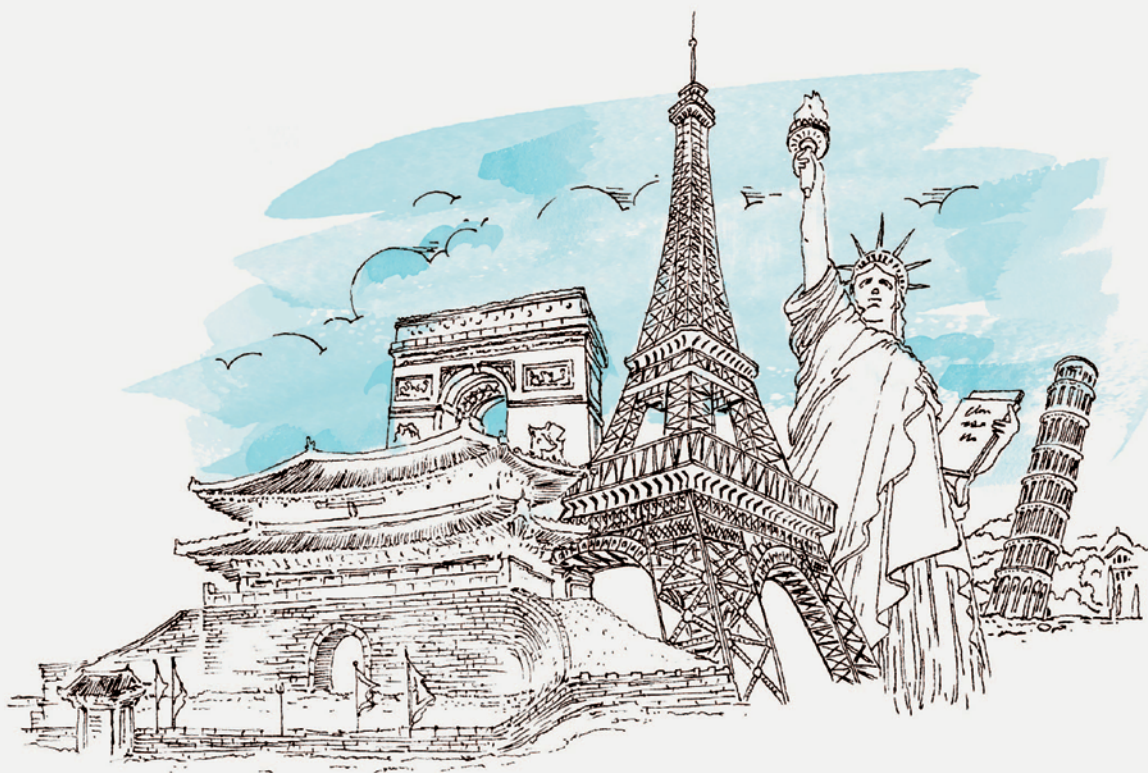
Jl. Jend. Gatot Subroto Kav. 9 - 11, Jakarta 12930 - Indonesia

Tel. 5257261 (Hunting), Fax : 5257260 www.kmf.co.id



이제 세계는 더 가까워지고, 당신의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가장 편리한 스케줄을 드리는 대한항공—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어디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구 간	편 명	출 발	도 착	요 일
자카르타 > 서 울	KE628	2155	0645 ¹¹	매 일
서 울 > 자카르타	KE627	1520	2030	매 일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050	0840	화,목,금
서 울 > 덴파사르	KE629	1720	2330	월,수,목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340	1130	월
서 울 > 덴파사르	KE629	2010	0220 ¹¹	일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Network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Dong Young Park



Young Bin Lee



Hyun Ah An

- Dong Young Park, accepted by Handong University
- Young Bin Lee, accepted by Kukmin University (Economics)
- Hyun Ah An, accepted by Hongik University (Industrial Design), Ehwa Women University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주최하고 수여하는 캠브리지 국제시험(CIE) BRILLIANCE AWARDS에서 인도네시아 우수 학교 중 상위 3위권 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Academy For Talented Children (Grades 4-6)
- Secondary 1-4 (Grades 7-10)
- 'A' Levels (Grades 11-12)
- Foundation Programme for University (GAC)



Our New Facilities:

* Acer Centre of Excellence For Digital Art & Animation

* 1st Singapore Education Centre, South Jakarta Hub

Authorized Center of:



Partners in Learning: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 데벙,보고르,땅그랑,꼴라빠가딩,브까시 지역 : 20만 루피아/년
- 족자,발리,바탐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우송료 (1부/1년)

- 자카르타 시내 : 15만 루피아/년
- 데벙,보고르,땅그랑,꼴라빠가딩,브까시 지역 : 20만 루피아/년
- 족자,발리,바탐 등 타 주 : 25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NEWS Fax : (021) 526-8444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시는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JIMS는 우리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족같고 인내하며, 주변을 살피고, 영감을 얻고 즐거운 공간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주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

창조성과 뛰어난 소질 개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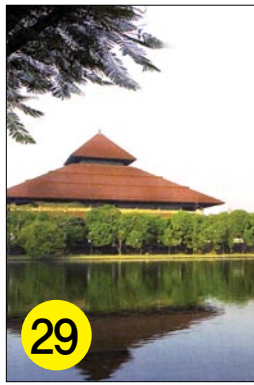
JIMS 오픈 하우스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YP / MYP Presentation
Enrolment for Year 7 & 8

Photo by Wulan Anggraini

2008년 3월 1일
토요일
오전 10 - 11.30

at
ISCI COMPLEX
Jl. Ir. H. Juanda No. 2
Ciputat 15419, Indonesia
Ph. (021) 7444 864, Fax. (021) 7411 222
info@jimsch.org www.jimsch.org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송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강영한, 김재민, 박만규, 김은미,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9 한인사회 소식

- 한인회 강당 확 바뀐다
- 졸업은 새로운 시작, 축하합니다

14 건강칼럼

- 별난 모양 별난 맛, 블림빙

16 인터뷰 이사람

- 한현봉, 보고르 한인회장

20 조금만 주의하면 현지생활 OK

- 비자문제

26 Art in Bandung

- 교육과 예술에 대한 통찰
Srihadi Soedarsono

29 특집 기사

- Top 10 인도네시아 대학

34 이야기가 있는 인도네시아어_1

- 인도네시아인이 사랑하는 예절들!

36 법률상식

- 인도네시아 헌법(2)

40 인도네시아 그 장벽넘기

- 발리에서 생긴일

42 상공회의소 주간소식

45 문화탐방 이야기

- 잃어버린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찾아서

49 박용민의 영화 Talk Talk

- 바보들의 행진(1975)

52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 Outsourcing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특별기획 에너지 시리즈 - 5

- '골목대장' 푸틴의 에너지 횡포

58 한인회 소개

61 상공회의소 소개

65 인도네시아 뉴스

70 생활정보 가이드

73 신작 영화 소개

74 신간 책 소개

76 1월 공지사항



한인회 강당 확 바뀐다

지난 1월 초 한인회 부회장단은 신년모임을 갖고 교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 열망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언제나 차 한잔하면서 신간서적을 읽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안들을 도출한 결과 현재 코리아센터 내에 위치한 한인회 강당을 리노베이션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한인회는 한인인테리어 업체를 선정, 도서관과 휴식 & 문화공간이라는 컨셉과 한인회 자체적인 정기 회의 및 세미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구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쳤다.



현재 한인회 강당(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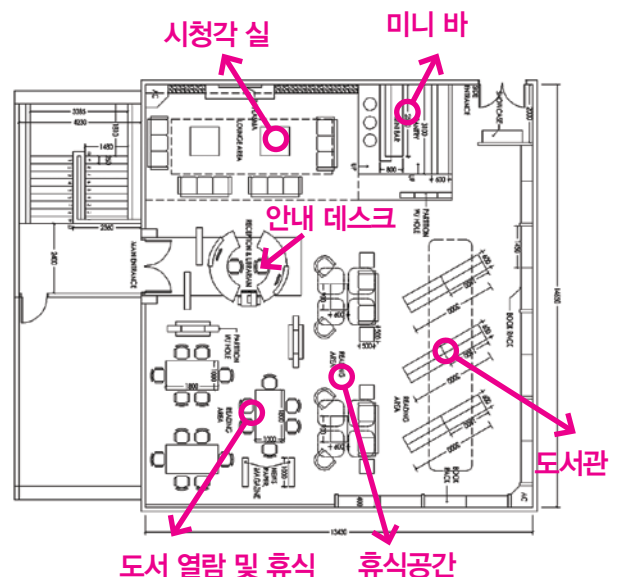
현재 한인회 강당(내부)

작은 공간, 넉넉한 도서관

인도네시아에 살다보면 한국어로 된 신간서적을 구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한국을 잠깐 들르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읽고 싶은 책을 구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미안하지만 부탁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해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한인회 강당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둔 부분이 바로 도서관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5천여권 이상의 신간서적을 충분히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한인회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서적과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니 도서관 맞은편에는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상과 걸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 도서관의 책을 빌려가고 싶다면?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커피한잔의 여유, 미니 바

그야 말로 미니 바다. 도서관 좌측으로 커피한잔 정도를 음미할 수 있도록 미니 바를 준비해 왔다. 약속시간이 어정쩡 남아 있다면 잠깐 들러 커피 한잔 마셔볼만 하다. 커피와 차는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 방송과 최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

가끔 짬을 내어 한국 방송을 통해 새로운 시사정보들을 접하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땐 역시 폭신한 소파가 최고다. 잠깐! TV를 시청할 땐 옆에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이를 생각해서 볼륨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해주는 에티켓을 보여주자.

편안한 휴식 공간

강당 중앙부에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파들을 준비했다. 동행인이 둘 셋 정도라면 주위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다운 대화를 나눠보자.

깔끔하고 친절한 안내데스크

공간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된다. 직원들이 항상 교민들을 친절히 맞아 줄 것이다. 안내직원들은 도서관 관리, 도서 대출, 편안하고 유익한 한인회 강당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가끔 교민들을 귀찮게 굴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당이 모든 교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안내직원의 지시에 잘 따르는 멋진 교민이 되자.

한인사회의 후원 절실

교민들이 함께 일어서 가꾸어 가는 것이 한인회 강당 리노베이션의 궁극적 목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한인사회의 대표 대변기관으로서 한인회가 교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바람도 깃들어 있다. 이런 면에서 한인회 강당은 휴식과 문화의 공간만이 아닌 우리 교민사회의 의사 소통의 창구를 톡톡히 해낼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는 행복과 신뢰로서 상호 의지해 나가는 멋진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한인회 강당 리노베이션을 위한 교민 독지가의 정성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후원을 원하시는 교민분들께서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바란다.

◆ 한인회 강당 리노베이션 후원금 모집 ◆

문의: 한인회 사무국 (521-2515)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Indonesia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은행주소	GKBI Lt.12 Jl. Sudirman Kav.28 Jakarta	Jakarta Stock Exchange Bldg Lt.16 Jl. Jend. Sudirman Kav. 52- 53
계좌번호	RP A/C No. : 220 200 5949	RP A/C No. : DDA 913-000538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떠나는 황윤홍 편집위원

- 한인뉴스 황 위원에게 감사패 전달

지난달 22일 자카르타 한 음식점에서는 한인뉴스 편집위원 일동이 참여한 가운데 2004년부터 4년 여 동안 한인뉴스 편집위원으로서 교민들의 소식을 전하고 한인뉴스가 교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잡지로 발돋움하는데 큰 노력을 한 황윤홍 편집위원을 떠나보내게 됐다.

이날 승은호 한인뉴스 발행인과 편집위원 일동은 황윤홍 위원의 그간의 공로에 고마움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황 위원은 인도네시아 Bii은행과 Standard Chartered Bank에서 한국 데스크로 근무하면서 한인뉴스를 통해 교민들에게 유용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기고를 해 왔으며 최근에는 <포커스 인도네시아> 연재 기고를 통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다뤄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황 위원은 “지난 1999년 1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래 교민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으로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아름다운 교민사회가 지속되기를 바랐다.

앞으로 황 위원은 현재 자산 규모 세계 제 1위로 유럽계 은행인 UBS Bank, Singapore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의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코리아나 야구단,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

지난해 창단한 무궁화 코리아팀을 중심으로 하는 한인야구 협회는 현재 4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성인들로만 구성된 야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어린이 야구단 관련 문의가 있어 한인어린이 야구교실을 운영하기로 결정 하였다. 어린이 야구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스나얀 야구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 야구교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본인 야구 글러브, 운동화 및 운동복만 지참하면 되며 초등학교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야구협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사무국장 김종현 (0811-837-386), 사무차장 서준영 (0813-1843-6062)



졸업은 새로운 시작. 축하합니다!



졸업은 배움의 한 단계의 결실을 맺고 동시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의 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졸업식장은 항상 선생님과 동료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떠나 보내야 하는 서운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대한 기쁨이 함께 존재한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자카르타한국국제 학교에서는 초등과정과 고교과정의 졸업식이 있었다. 학교 강당엔 꽃을 한아름 안아 들고 수학과정을 무사히 마친 자녀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과 후배들, 교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졸업식이 거행됐다.

금년에는 초등과정 졸업생 86명, 고교과정 졸업생 121명이 각각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고교과정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은 더욱 큰 빛을 발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졸업생들은 해외 한국학교에서 가장 많은 한국대학 합격자를 내 다시 한번 자카르타한국학교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물론 이런 뛰어난 진학 실적은 학생들의 학구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내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도전의 관문이다. 힘찬 날개를 달고 너 넓은 세계로 도약하게 될 졸업생들에게 부러움과 영광의 박수를 보낸다.





● 초등과정 졸업생 현황

졸업생 수			진학 현황		
남	여	계	본교진학	귀국	기타
47	39	86	77	3	6

● 고교과정 졸업생 현황

졸업생 수			진학 현황				
남	여	계	국내	외국	미확정	기타	계
67	54	121	117	3		1	121

● 고교과정 졸업생 진학 상황(합격 기준, 중복합격 포함)

대학	서울	포공	연세	고려	서강	한양	성균관	이화	중앙	경희	홍익	외대	인하	건국	동국	기타	계
합격자	8	1	20	13	17	10	2	10	8	19	11	9	6	7	11	95	247



별난 모양 별난 맛, 블림빙

과일들이 제 각각 나름의 모양을 뽐낸다고 하지만 이 과일과 건주면 그 세련됨에 빛을 잃고 맙니다.

먼 미지의 세계로부터 초대받고 달려온 오리온성의 별님 모양, 지구의 생명체가 아닌 듯 하며, 정말이지 동화에나 나올법한 색깔과 모양과 맛을 지닌 블림빙입니다. 입에 넣고 보면 사각사각 씹을수록 새콤 달콤 입맛을 더해주는 그 맛 또한 별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가히 짐작이 어려우나 그 속을 만나는 순간, 어릴 적 동화의 세계로 빠져 들게 하는 형상과 맛을 가진 멋쟁이 과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블림빙의 학명은 *Averrhoa carambola* L. 입니다. *Averrhoa*는 스페인 출신의 아라비아 철학자이며 의학자로 알려진 Averroes(1126-1198)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식물학적 계통으로는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쌍자엽식물강(Magnoliopsida) 팽이밥목(Oxalidales) 팽이밥과(Oxalidaceae)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가 그 원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림빙은 상록의 교목 또는 작은 교목으로 키는 보통 6~12m정도로 자라납니다. 잎은 난형으로 되어 있으며 꽃은 가지의 끝과 줄기에서 나와 많은 작은 꽃이 모여서 열은 보라색으로 핍니다. 흔히 Star fruit이라고 부르며, Carambola, kamranga, five finger이라고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 블림빙(Belimbing)이라고 부르며 asom jorbing, balireng, lombituka gulaemd과 같이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대표적인 두 종의 블림빙이 있는데, 그 하나는 Belimbing Manis(*Averrhoa carambola* L.)이며 또 다른 하나는 Belimbing Asam(*Averrhoa bilimii* L.)이라 합니다. 대체로 10m 정도의 키로 줄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블림빙은 처음에 연 초록을 띠다가 점점 노란색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붉은색의 빛깔이 돕니다. 껍질은 토마토와 같이 광택이 있고 탄력이 있는 막으로 싸여 있습니다. 5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단면을 자르면 예쁜 별 모양을 볼 수 있고, 씨는 작으며 초콜렛색을 띱니다. 독특한 블림빙의 맛을 살펴보면 사각사각 거리는 느낌은 수박에서 온 듯하며, 새콤달콤함은 사과와 배와 포도를 섞어 놓은 듯, 혹자는 사과와 파인애플과 키위를 섞어 놓은 듯 하다고도 합니다.

블림빙은 한의학 고전에 자주 등장하는 약재로 양도(陽桃), 오검자(五檢字), 산오능(酸五稜) 등으로 불리우며, 성미(性味)는 한(寒) 무독(無毒)하고 감산(甘酸)하며, 귀경(歸經)으로는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이 됩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풍열을 치료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갈증을 멎게 한다. (主治風熱 生進止渴)”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본초서적에서 언급하는 바가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肉食毒을 풀며 風痺을 푼다”

“말린 열매나 정제된 벌꿀에 담근 것은 풍토부적응 증이나 학질을 치료한다”

“갈증을 멈추게 하며 번열증을 치료하고 열을 내리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소아의 구강 미란을 없애준다.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

“체한 것을 풀어주며 해독시키며 혈을 맑게 해준다. 구강의 미란과 치통을 치료한다”

“술독을 풀어주며, 체한 증상과 쌓인 것을 풀어준다.”

흔히 감기의 재 증상이 나타나는 풍열을 치료 하는 데는 신선한 블럼빙을 먹으면 완치된다고 하며, 결석의 증상을 치료하고자 하면 블럼빙 3-5개를 꿀과 함께 달여서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치 아래가 자꾸 무엇인가 쌓이는 듯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블럼빙 5-8개를 짓찧어서 즙을 짜낸 후 1컵씩 하루에 2회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한의학 고전에서는 블럼빙의 뿌리가 두통과 관절통에 효험이 있다고 하며, 그 잎은 소변배출을 돕고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블럼빙의 꽃은 한열왕래가 나타나는 학질에 좋으며 아편 독을 치료한다고 하니 예로부터 블럼빙의 쓰임새가 우리네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블럼빙이 비타민C(45%)가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A(15%), 철분(2%), 단백질(1%), 섬유질(12%)등의 영양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달콤새콤한 맛이 밥맛을 잃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그 모양과 더불어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과일 이 아닌가 합니다. 민간에서는 블럼빙을 옷의 찢든 때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고 있으며, 더러운 손톱을 담그면 그 때가 깨끗이 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럼빙의 그 예쁜 모습과 달리 해가 되는 측면도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신부전환자가 블럼빙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신경독성 부작용을 일으켜 발작, 불면, 흥분이 발생하게 되고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가중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신장에 질병이 있는 분들께서는 블럼빙 섭취를 자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블럼빙은 보통 껍질을 깨끗이 닦아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며,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쪽씩 먹어 보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다소 생소한 맛의 느낌이 덜 하고 그 사각사각한 맛으로 인해 입 안을 시원하게 해주어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주스나 시럽으로도 많이 먹으며 젤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 맛이 강한 블럼빙을 산미료(酸味料)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을 장식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으며, 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 되기도 합니다. 생김새만큼이나 재주가 많은 과일 입니다.

술한의원 원장 강효정(kang4333@chol.com / 021-7278-7410)



한현봉

보고르 한인회장

새해 들어 보고르 한인사회의 얼굴 (?)이 바뀌었다. 항상 웃는 얼굴에 강한 억양이지만 투박한 말씨, 사장이면서도 항상 청바지를 즐겨 입는 한현봉 보고르 제3대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주변에서 흔히 듣게되는 말이 있다. “겨울에 한국에 잠깐 들리실 거라고요?” “보고르 한 사장님 공장에 먼저 가세요” 한현봉 회장의 공장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옷가지를 한 보따리 받아 들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주위에 인심이 후하다. 겨울철에 한국에 잠깐 들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꼭 찾아가보길……~



Q 안녕하세요. 올해 보고르 한인회의 신임회장이 되셨다니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회장님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17년 전인 91년도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봉재쪽에

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지요. 약 2년 정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한국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운이 좋았나 봅니다. 그때 만난 지인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봉재업을 계속하고 있고 작으나마 공장도 있으니까요. 저는 99년도 8월 말 지금의 사업체(Indomatra Busana Jaya)를 설립하고 현재 총 2000여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000만 달러의 매출

을 올리려고 새해 벽두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보고르 한인회가 거의 1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연말이면 어김없이 보고르 한인회의 초청을 받아 연말골프대회에 자주 참가했었는데 조금 놀라운 것은 타 지역 한인사회에 비해 회원들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고르 한인사회에 대한 자



랑을 좀 해주세요.

A 자카르타 교민들과 다르게 보고르 한인사회는 그리 특별하게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르 교민들의 마음엔 여유가 가득하고 타인에 대한 넉넉함이 물씬 풍겨납니다. 저희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매달 넷째주 수요일이 되면 보고르 한인회 회원사 회원들은 어김없이 골프장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업과 현지, 국제적인 현안사항들에 대한 정보교환이 목적이지만 운동을 마치고 거의 빠짐없이 저녁시간을 함께 하며 돈독한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고르 한인사회의 발전에 대한 안전들을 내고 토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한인회이지만 저희는 이곳의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인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골프 모임이 보고르 한인사회의 특성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년 광복절기념행사 때 골프대회를 오전에 개최했지 금년부터는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광복절의 취지와 한인사회의 위신에 맞게 골프대신 전 교민들이 함께 하는 자선 바자회 등 더욱 뜻 깊은 행사들이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골프모임이 보고르 한인사회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르 한인회 거의 10여 년간 골프모임을 통해 태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각 회원사간 상호 우호돈독 및 친목을 위한 단순한 모임이었으나 전임 김기필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한인회를 재정립하여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르 한인회는 제조, 전기, 기계, 보험, 유통, 기타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 약 70여 회원사를 둘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이와 발 맞춰 지역 교민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보고르 한인회가 99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해온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보고르 한인회는 상호친목도모와 우의를 다지며 업무협조와 정보교환 및 공동이익 보호를 위한 공조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르 한인회는 보고르 한인사회의 대표 대변단체로서 노동집약적 운영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임금 부담경감과 이를 통한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매년 Bogor Apindo와 협력하여 적절한 임금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보고르 한인회에서 불우한 보고르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 낸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한인사

회의 귀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사실 외부에 알리기에 쑥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르 주민들의 온화한 성품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즐겁게 온정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르 한인회는 매년 현지 고아원과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해전부터 현지 'Raudjotunnisa' 고아원을 방문하여 쌀, 라면, 의류, 인형, 학용품, 과자류 등 생필품들을 전하고 지금은 생활이 어렵겠지만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전하고 있습니다.

Q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지난 2006년 9월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인문대학내에 개설된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과' 학생 4명에게 2007년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기 위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르 한인회는 보고르 교민의 사업과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한국 관련 교육분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한 뒤 우리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경우 물론 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화를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잊고 지낸 문화나 예술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의미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에도 한인회 부회장단이 모여 열띤 토의를 했고 그 결과 한인회 강당을 새롭게 단장하여 교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르 교민사회는 어떤지요?

A 보고르 한인회도 지금까지 10년 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한 모임이었지만 역시 봉재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공인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일반적인 교민사회 쪽으로 폭을 넓혀 갈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이곳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고르 한인회원이 아닌 교민이 단신으로 가족도 없이 생활하다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르 한인회원 전원의 동의와 대사관의 협조로 치러진 그 교



인터뷰 중인 조규철 한인뉴스 편집인

민의 장례는 분명 슬픈 일임에 틀림없지만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보고르 교민들의 단합된 모습은 비록 우리가 뚜렷이 내세울 것이 없는 한인회지만 점점 성숙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치단결하는 마음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보고르 한인회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Q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현재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감투를 쓰고 있었던 면이 적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한인사회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조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40~50대 층이 두터워 졌으며 최근 청년부의 발족으로 신선한 아이디어와 진취적 의욕을 지니고 있는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해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중점사업으로 각 지방한인사회

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한인 회에서는 홈페이지나 업무 협조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르 한인회와의 활발한 연계활동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르에서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부여하고 성장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야 하지만 우리가 연고를 두고 있는 이 지역 한인사회와 현지주민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인회가 조직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현봉 보고르 한인회장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 지방 한인사회와 더 나아가 타국의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넓혀진 시야는 우리 보고르 한인회에 더 많은 도전정신을

지난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모이는 한상대회에 갔을 때 재외동포 중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매출 규모는 인도네시아 한인기업들의 그것을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가 컸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인도네시아를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대부분 이곳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에서 오는 희열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인뉴스와의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후기 :

한현봉 회장과의 인터뷰를 끝내고 한인뉴스는 그의 공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작업에 열중인 근로자들을 보는 것만큼 기분이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2000여명의 인도네시아 직원, 하지만 그들과 동거 동락하면서 회사를 리드해 가는 것은 한현봉 회장과 단 한 명의 한국인 직원이었다. 갑자기 옷가지를 좀 챙겨가라고 한현봉 회장이 인심을 썼다. 인터뷰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차량의 트렁크에 가득 챙겨놓은 옷들 생각으로 마냥 흐뭇했다. 겨울철 서울을 들를 계획이라면 그의 공장 견학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다시 한번 스친다. 그분 인심 한번 후하시네.....

재인니 보고르 한인회 회장단 명단

성명	직책	전화	핸드폰
한현봉	회장	7782-2959	0818-845-392
이정남	부회장	0226) 734-090	0812-1108-171
최종섭	부회장	867-1445	0816-968-404
조정열	부회장	875-5548	0816-185-5045
이세호	부회장	0251) 610-001	0811-818-781
안창섭	간사	823-2315	0816-188-2761
이철훈	총무	867-1721	0811-112-179
임성필	부총무	5565-2220	0819-707-107
김기필	고문	7782-6455	0811-923-3332

조금만 주의하면 **현지 생활 ^OK^**

- 비자 문제 -

외국인으로서 우리 교민들이 타국에 살면서 이곳 체류문제로 자주 부딪히게 된다. 교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 잣대에서 문제가 없는 교민은 없다', '법을 알고 있어도 당한다' 등등의 말속에서 체류문제의 어려움이 그대로 배어 나온다. 이에 한인뉴스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사증담당 박상훈 영사와 함께 교민들이 문화적인 차이나 인니 법률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작은 안내를 기획했다. 좀더 능동적으로 교민들이 외국생활을 해나가는데 참조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 비자종류별 체류 시 유의사항

글 : 주 인니대사관 사증담당 영사 박 상훈

- 인도네시아 방문 목적은 주로 관광, 친척방문, 거래처 방문, 회사 업무 출장, 시장조사, 어학연수, 사업체 경영, 취업 등으로 구분 됨 그러나 소지 비자의 종류가
 - 실제 활동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허가받은 직책이외 겸직근무나 타 업체 근무 경우 등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음
- 단순한 상담이나 회사 방문 등 을 위해 간편한 도착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문화비자는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비자 발급시 구체적으로 활동이 명시되므로(초청장이나 스폰서에 근거) 인니 입국 후 활동에 각별이 주의가 요망됨

- 또한 장기체류증인 KITAS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체류연장에 따른 수수료(노동개발 부담금등)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최장 6개월간 체류 가능한 사회, 문화 비자를 이용 하는 경우에 현지 경찰, 이민청 직원과 마찰을 겪기도 함
- 아래 사항들은 우리교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착비자의 경우와 사회, 문화 비자. 그리고 장기체류증인 KITAS(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체류 중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로 대부분 주변의 신고나 장기간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확인한 뒤 조사한 경우로 사안에 따라 입건이 된 경우도 있으므로 체류기간 동안 참고 하시기 바람

- 주요 비자 종류별 현황 -

종류	체류기간	활동가능 업무	신청절차	비고
도착비자	7일/30일 이하 (2종류)	방문·사회문화, 상용	공항도착 후 현장발급	- 연장불가
사회·문화 비자	60일 이하	- 관광(Visa Wisata) - 친척방문(Visa Kunjungan) - 어학연수 등 (Visa Sosial-budaya)	초청장을 제출하여 주한인니대사관에 신청(관광/친척방문) + 왕복티켓	- 1개월 단위로 4회 계속 연장이 가능 - 총 6개월 간 체류가능 - 최초에 부여하는 기간은 통상 60일 이나 30일 경우도 있음 - 복수사증의 경우 신청조건 제한(최초 1회 이상 출입국/초청회사의 스폰서)
		- 상용 (단수/복수) (Visa Usaha)	- 단수의 경우 국내 출장 명령서/또는 인니 이민청 허가 받아 제출(주한 인니대사관) - 복수의 경우 사전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신청은 주한 인니대사관 또는 해외 공관)	
취업비자 등 장기체류증 (KITAS)	1년	- 허가받은 내용에 따름	- 인니 이민청 허가 받은 후 해외공관 (주한인니대사관 포함) 에 제출하여 받음	

도착비자 소지자 체류 시 유의사항

도착비자(Visa On Arrival)는 대한민국을 포함 미국, 일본, 호주 등 63개 국가국민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 상으로는 관광, 사회-문화 활동 그리고 상용목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도착비자 시행령 제1조제1항)

● 도착비자는 30일 이하까지 체류가 가능하여 상담이나 비즈니스 활동의 경우도 대 부분 도착비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상용목적의 범위나 한계가 모호하여 일선 공무원 들 사이에서도 제각기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있음.

● 아래 사례들은 실제로 교민들이 이민청 직원이나 경찰에 의해 입건된 사례들로 대 부분 주변의 신고로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밝혀짐

공장을 방문하여 기계 설치작업을 한 경우

▶ 한국의 기계제작업체인 000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공장에 자사 제품기계를 판매하고 계약 상 기계설치 작업까지 완료하기로 하여 기술자 4명을 파견하였으나 기술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를 설치한 작업자체가 영리 활동이라는 논리로 입건 된 사례임

※ 현지 경찰이 숙소에서부터 기술자 4명이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추적, 공장에서 작업하는 현장을 사진 찍은 후(증거라고 주장) 현지인 사장과 기술자 4명을 경찰서로 연행, 법을 위반 했으니 이민청에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례, 현지 사장이 해결을 못하자 조사 받던 교민이 신고하여 인지된 건임

회사 내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했다는 사유

▶ 한국의 식품회사 직원인 A씨는 출장 차 협력회사를 방문하여 현지직원 책상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서류 검토 및 업무협의를 했으나 비자 초청자의 회사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입건 된 예. 심지어 사회·문화비자를 소지했어도 회사가 상이하다고 조사 받은 예도 있음 (사회문화비자 사례3 참조)

※ 동 건은 타인의 회사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본사와 관련 있는 협력회사를 방문한 것도 아닌 단순히 책상과 컴퓨터를 사용 한 것 뿐인데도 관련 없는 업체에서 영리활동을 했다면 이민국으로 출두 요청, 장시간 조사 후 귀가 조치한 예임

인니 소재 특정회사에 송금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

▶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민 00를 신규 투자 시장조사 명목으로 한국으로부터 초청, 현지 업체와 상담을 주선하



고 동 업체와 투자계약이 체결되자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하도록 하고는 이민청에 신고한 사례

※ 한국인과 인니인이 합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의 회사나 다른 업체에 투자할 것을 회유하면서 교민 00를 3-4차례 도착비자로 출입국토록 한 뒤, 투자금 중 일부가 송금 되자 불법 활동을 했다고 한국인이 파트너인 인니인을 동원, 이민청에 자료를 제공하며 신고한 건으로 장시간 조사에 염증을 느낀 투자자가 한국으로 귀국해 버린 경우

도착비자로 수차례 출입국 했다는 사유(1, 2)

▶ 사례(1)은 공항 입국 심사 시 도착비자로 수 차례 출입국한 교민 B씨를 그 동안 단순 관광이나 사회, 문화 활동에 종사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입국 후 활동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조사한 경우

※ 교민 B 씨는 사업 구상을 하면서 도착비자 만료일 전날 싱가포르로 잠시 출국한 뒤 다음날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출입국 해왔으나 공항 입국심사 직원이 과거 법 위반 사실 여부는 물론 입국 후 불법 활동 가능성도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조사한 사례임

▶ 사례(2)는 도착비자로 입국 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여 한국 판매 목적으로 자주 출입국한(숙청 보따리 장사) 교민 S 씨를 현지 의류가게에서 이민청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 불법 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조사 한 경우

※ 의류 도매상이 밀집해 있는 상가에서 특정업체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보복성 제보를 한 경우로 계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해 갈 경우에도 정식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임

도착비자로 입국 후, 체류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교민 "J"씨는 도착비자로 입국 한 후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인 개인집에 투숙하였으나 관할 경찰이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본인 및 집주인을 조사 한 경우

※ 도착비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호텔에 투숙 시 숙박신고서 작성으로 모든 신고절차가 완료 되지만, 개인의 집에 머물 경우 24이내 관할 경찰서 신고 의무가 있음, 특히 법 위반목적으로 조사를 하다 특이사항 없을 경우 동 체류지 신고조항을 문제 삼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의해야 함

※ 체류지 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500만 루피아까지 부과 할 수 있고 처벌도 집 주인을 대상으로 하여 간혹 방문자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



도착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거의 불가능 하고 다른 자격으로 변경도 허용되지 않음. 관광이나 방문의 경우는 체류기간 30일이면 충분하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임

통상적으로 상용의 범위는 호텔 등에서 파트너와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정도이고 회사를 방문하여 기계를 조작하거나 작업에 가담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음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이민청뿐만 아니라 경찰도 조사 권한이 있어 간혹 경찰이 회사나 업체를 찾아와 체류자격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을 이민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 되어야 하나 대부분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도착비자에서 한 단계 발전한 사회·문화비자와 취업비자 또한 소지한 비자의 종류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목적의 활동 즉, 체류자격외 활동을 했다고 입건하는 것은 모두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 제50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최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어 주의가 필요함

사회·문화 비자 소지 체류 시 유의사항

● 사회·문화비자(Visa Sosial-Budaya/코드번호 211)는 친척방문, 어학연수, 문화 활동, 상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하여 6개월 까지 체류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활동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그 만큼 법 해석도 자의적인 경우가 있음

● 친척방문(Visa-Kunjungan), 관광(Visa-Wisata), 상용(Visa-Usaha)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자 신청 시 목적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상용의 경우 초청회사와 다른 업체와의 업무협의 시 특히 주의가 요망됨

● 또한 6개월 씩 장기체류 시는 이민청이나 경찰이 취업성 체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류 목적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학연수 목적의 사회·문화 비자를 소지하고 미용실 근무자 방문

▶ 과거 취업 비자를 소지 한 적이 있는 교민 C씨는 일단 완전 출국 후 어학연수 목적으로 사회·문화 비자를 받아 입국 한 뒤 친구가 운영중인 미용실을 2- 3 차례 방문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사회·문화 비자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 받은 경우

※ 동 건은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이 합작으로 운영중인 미용실의 친구를 방문한 교민 C씨를 주변 현지인이 교민 C씨가 미용실 일을 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조사를 한 경우로 조사완료시 까지 여권을 압수한 사건(과거 취업 비자 소지 사실을 중시하고 조사한 경우)

관광목적의 사회·문화 비자를 소지하고 피아노, 영어, 수학 등 과외지도 활동

▶ 사회·문화비자(체류기간 60일)로 입국한 뒤 교민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아노 개인교습/과외지도를 하다 적발된 경우

※ 동 건은 학원 설립허가를 기다리는 중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던 교민oo을 체류자격외 활동위반으로 입건 처벌한 경우로 반드시 인도네시아 문교부 발행의 학원 교사자격증을 사전에 득하도록 되어있음.

※ 단지 피아노 교습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논술 등 허가 받지 않은 개인교습은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 요망. 교습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허가 받은 체류자격에 따라 입건될 소지가 될 수 있음



출장명령서를 제출하고 받은 상용비자와 다른 업체에서 활동

▶ 한국에서 상용비자(사회, 문화 비자에 포함)를 받기 위해 회사로부터 출장명령서를 제출하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는 받았으나, 인도네시아 입국 후 다른 회사를 방문 상담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조사 받은 경우

※ 동 건은 한국의 A라는 회사의 출장명령서로 입국하여 인니법인인 지사 업무를 종료하고, 계열사인 B라는 회사의 업무를 도와 준 경우로 A와 B회사가 계열사임을 주장하였음에도 문제를 제기한 경우임, 확인 결과 B회사의 현지인이 이민청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짐

자녀를 현지 학교에 유학시키고 모가 사회문화 비자로 뒷바라지 한 경우

▶ 미성년 자녀는 장기 체류자인 부모와 동반자격이므로 별도 유학 비자가 필요치 않음, 그러나 최근 자녀만 유학시키고 모만 인도네시아에서 사회 문화비자로 체류하며 뒷바라지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음

※ 동 건은 학교에서 스폰서를 하여 학생 본인에게는 유학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모는 장기 체류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사회·문화비자로 체류해 오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민청은 모가 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학교 스폰서와 모의 체류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임)

사회·문화 비자 소지자가 불법체류 되자, 스폰서를 조사한 사례

▶ 교민 O씨는 비교적 고령으로 3년 전 인도네시아 회사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회사(사장)의 스폰서를 받아 입국한 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불법 체류(2년간)된 후 출국을 희망하였으나 불법체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스폰서인 회사(사장)를 상대로 조사한 사례

※ 60일 이하 불법체류시는 1일 미화 20달러로 환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나 60일 이상 장기 불법 체류 시는

보호조치 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원할 경우, 위반 사유나 연령 등을 고려 하여 이민청이 과태료 부과 없이 출국조치(강제퇴거) 협조하고 있음

사회·문화 비자로 입국 후 관할지역이 다른 지방사무소에서 허가 받았으나, 동 연장허가 위법이라는 사유로 조사 받은 사례

▶ 교민 C 씨는 자카르타 소재 회사의 초청장을 소지하고 입국 후, 칼리만탄의 공사 현장에서 체류하였으나, 비자 연장자 자카르타로 돌아오기가 어렵게 되자 현지 브로커를 통하여 칼리만탄 지역 이민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스폰서를 변경하여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사유로 조사를 받은 사례

※ 현지 브로커가 합법적으로 연장을 받은 것처럼 하였으나 확인 결과 임의로 스폰서를 바꿔 연장을 받았음. 그러나 주변의 신고로 “스폰서 임의변경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사례로 사회·문화비자의 스폰서가 변경될 경우는 일단 출국 후 재입국토록 하고 있으나 현지 브로커가 교민 C씨를 기만한 사례임

취업비자(KITAS)등 소지자 체류 시 유의사항

· 취업 비자 등 장기체류증(KITAS)은 사전에 이민청의 허가(케이블 이라 함)를 받아, 그 허가서 내용대로 해외 공관에서 발급 받은 것으로 장기 체류는 보장되나 체류자격외 활동이 매우 제한적임(코드번호 311-319)

· 통상적으로 제한체류비자로 불리는 KITAS는 취업, 비영리 분야 장기체류자, 유학, 기타 동반 가족, 그리고 실버비자대상으로 구분되며 코드번호도 체류자격에 따라 달리 명시됨

· 취업비자의 경우 체류허가가 회사의 직책까지 사전에 지정되므로 그 이외의 활동은 위반이라는 것이 주재국 이민청의 확고한 유권해석이고 단속도 매우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음

· 특히, 위반 사실이 적발 되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음

회사 내 직책을 제품관리자로 허가받은 후 총무업무를 겸직한 경우

▶ 허가 받은 회사 이외 다른 업체 겸직근무는 물론, 동일 회사 내에서 겸직할 경우도 위법으로 단속된 경우로 보고 교민 C 씨는 회사 내 직책이 QUALITY CONTROL MANAGER이나 총무부장이 장기간 결원되어 총무부장직을 겸직했으나 체류자격외 활동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총무부장 일을 했으면 추가 직책근무에 따른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탈세했다는 논리이며 현행 규정 상 직책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체류허가 갱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자카르타 소재 회사 직원이 지방업체에서 기술지도 한 경우

▶ 교민 K 씨 본인은 자카르타 소재 회사 직원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근무해 오던 중, 지방의 교민이 운영중인 유관업체에 파견되어 약 3주간 머무르며 현지인들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다 적발 된 사례로 본인은 물론 고용주까지 조사를 받은 경우임

※ 동 건 또한 지방업체 현지 직원이 지방 이민청에 신고를 하여 입건된 사례로 본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근무처를 벗어난 경우와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업주도 처벌대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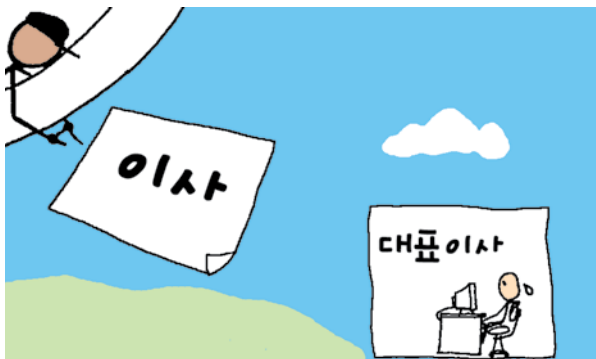
회사 정관변경으로 직책이 바뀌었으나 체류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 교민 L 씨는 최초 투자 법인을 설립할 당시는 대표이사(direktor utama)로 허가를 받았으나 추후 정관이 변경되어 이사로 직책이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 된 이사 직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입건 된 사례

※ 동 건은 투자 지분의 변경으로 직책이 대표이사 → 이사로 정관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허가로 계속 체류 하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로 확인 결과 본인 L 씨도 모르게 제3자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한 뒤 L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이민청에 신고해버린 사례임

※ 이 경우 비록 KITAS상 체류기간이 유효하여도 정관 변경으로 직책이 바뀌었다면 그 때를 기준으로 체류허가를 갱신해야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불법활동으로 간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됨

※ 이민청의 입장은 정관 변경의 절차상 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질 문제이고 체류허가는 별도 처리대상이라는 입장 임



취업비자 (KITAS) 연장 대행 시 노동허가서 허위 작성

▶ 교민 P 씨는 인니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취업비자 등 KITAS 연장 수속을 현지인에게 의뢰하였으나 대행업자가 노동허가서(IKTA)를 위조하여 이민청에 제출하고는 적법하게 연장 허가를 받은 것처럼 기만한 사례

※ 동 건은 연장 신청 대행을 현지인에게 의뢰 한바, 노동개발기금 1,200불을 횡령하고 허위 노동허가서를 이민청에 제출하여 체류연장을 받아 2-3차례 출입국까지 하였으나 추후 이민청 직원이 노동허가서를 직접 조회하여 적발한 사례 (노동허가서 온라인 조회 불가능)

※ 한편, 위조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현지 업자가 대행하였다고 해서 소지자(교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 신청 시 정식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KITAS 스폰서 일방 취소 후 강제출국토록 조치한 사례

▶ KITAS(취업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니측에서 스폰서(보증인)를 내세워 이민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스폰서가 상이해질 경우는 원래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스폰서는 신청인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 몰래 보증을 철회하고 동 사실을 이민청에 통보하여 출국 조치토록 한 사례

※ 동 건은 한국인이 인니인과 합작으로 투자자를 불러들인 뒤 일방적으로 스폰서를 철회하고는 이민청 직원을 동원하여 조사한 경우로 스폰서가 철회될 경우 본인이 출두하여 체류증을 반납하고 출국 준비 기간을 받아야 하나,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켜 버린 경우임(스폰서 철회 경우 불법체류가 됨)

※ 이민청은 동 스폰서 제도를 개정하여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여전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현지인 경쟁업체가 폐기물 배출건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체류허가 연장이 불가능 하게 된 사례

▶ 교민 K 씨는 환경물처리 관련 업체를 운영중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검찰이 장시간 조사한 결과 체류기간 연장은 물론 재입국조차도 제한 받은 사례

※ 동 사례는 이민청이 아닌 경찰-검찰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므로써 교민 K 씨가 출국금지를 당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보류되는 등 사업상 피해를 본 사례로 수사당국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를 당할 수 있음

※ 수사 등 목적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수사 기간 동안 재입국(일시 출국) 허가를 해 줄 수 없으므로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향후 사건이 종결 되었을 경우에도 체류 하가에 어려움이 예상 됨

KITAS 분실 신고 후, 재허가 취득 전에 기존허가 받은 대로 취업 활동 한 사례

▶ 교민 P씨는 취업허가를 받아 체류 중 한국에 일시 출국 중 KITAS를 분실하여, 회사에서 관할 이민청에 분실 신고를 하고, 본인은 우선 도착비자로 입국 한 뒤 KITAS 재 발급수속을 진행하던 중 체류허가증 발급전 취업을 했다는 사유로 입건된 사례

※ 체류증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본인이 외국에서 분실한 관계로 부득이 도착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외국에서 분실한 경우 입관계로 부득이 도착비자로 입국 하였으나 외국에서 분실한 경우 입국전 회사에서 취업 허가 수속을 먼저 이행하고 그 허가에 따라 비자를 받아 오거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분실한 체류증 내용을 확인받아 입국하여야 함에도 도착비자로 미리 입국하여 일을했으니 불법이라는 논리 임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고문으로 허가 받은 후 침술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례

▶ 교민 K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분야 고문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환자들에게 침을 시술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례로, 의료활동 취업허가는 허가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자 일단 회사의 다른 직책으로 허가 받은 후 실제로는 의료활동을 해오다 문제가 된 건임

※ KITAS 취득시 비용문제 및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사회·문화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며 미용실, 사우나,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KITAS는 소지하였으나 다른 분야의 직책으로 허가 받아 활동하는 것은 경찰·이민청의 수사 단속 대상이 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함

* 지금까지 우리 교민이 겪고 있는 체류관련 애로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였으며, 곧 이어 여권 및 이민청 출입국심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기타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비자 종류 및 취득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t.go.kr>) 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www.indonesiaseoul.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만은 지켜 나갑시다! *



공항 도착비자 및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여유있게 기다립니다.

한국 승객이 도착하면 공항직원들이 제일 바빠진다고 합니다. 일 처리를 빨리 해주려고 바빠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기다리는 여유를 보일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현지 문화와 법질서를 이해하고
존중해 나 갑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특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판단에 불합리한 제도라 하여도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곳 법과 제도입니다. 특히, 간편하다고 도착비자로 출입국 하면서 상용활동을 한다든지, 적발만 되지 않으면 되겠지? 설사 적발되어도 적당히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허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권위를 찾기위해 노력하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민이 대우 받는 길이 아닐까요?



교육과 예술에 대한 통찰

Srihadi Soedarsono

글 : 김영민 편집위원

자바의 파리로 불리는 반둥, 그만큼 예술적이고 지적인 고향에다 적당이 고지대에 있는 탓에 자카르타 시민들이 주말이면 몰려가는 피서지 역할도 해내고 있는 멋진 도시이다.

반둥이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둥에만 수십여개의 대학이 몰려 있으니 상상초월이다. 또한 반둥은 미인의 고향이다. 자카르타에서 좀 이뻐보이는 사람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반둥출신이라고 말한다. 진짜 반둥 출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도 반둥하면 먼저 미인을 떠올리는 것 같다.

주말이 아닌 평일 모처럼 만에 그저 즐기기 위함이 아닌 특별한 만남을 위해 반둥으로 떠났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환율 차를 생각하면 이곳 사람들에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들만한 그림 값으로 유명한 한 화가, 인도네시아의 현존 최고의 화가, 거장 등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어 있는 스리하디 수라르소노(Srihadi Soedarsono)를 만날 생각으로 말이다. 짜-악 뚫린 자카르타-반둥 고속도로를 타고 자카르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감을 느끼며 어느새 그의 집 앞에 다다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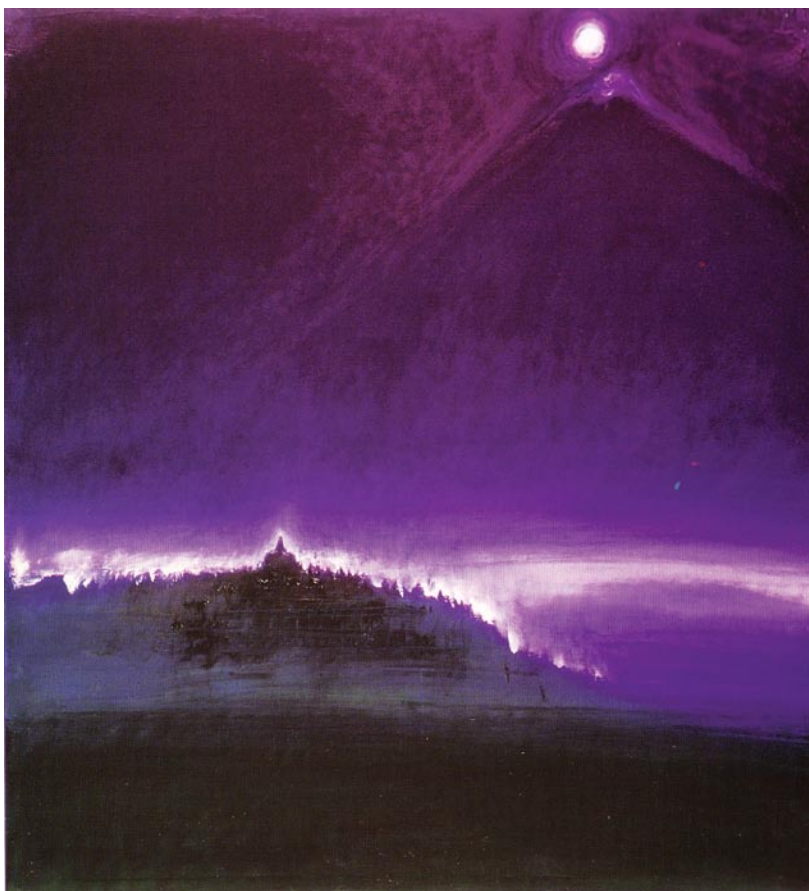
반둥시내에 자리잡은 그의 집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신선한 바람과 울창한 나무숲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집은 상당히 단아하고 깨끗함을 느끼게 했다. 방긋 웃고 먼 길 오느라 수고 했다고 스리하디 화가가 절친한 친구와 함께 반갑게 맞아주었다. 백발이 무성한 머리(차라리 하얗게 염색을 한 고운 머리가 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에 크지 않은 체구, 온화한 인상 스리하디씨로부터 풍겨나오는 인상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비스듬한 비탈의 땅 위에 인위성을 가미하지 않고 차복 차복 올려놓은 건물과 정원이 펼쳐졌고 그 분위기는 평온, 평안 그 자체였다.

스리하디 할아버지와 방문 목적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대충 그의 정보를 수집했지만 사실 그런 정보는 처음 만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예의 표현일 것이다.

스리하디씨는 1931년 자바섬 솔로에서 태어났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유년시절 수조조노(Sudjojono)라는 화가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그 후 그는 1959년에 반둥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반둥공과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그는 인도네시아 청년화가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동했고, 40~50년대 혁명의 시기 저널리스트로와 학도군으로서도 투쟁을 했다. 그 후 1962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활발했던 액션페인팅과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고 귀국 후 그는 1970년 학과장을 지낸 반둥공과대학과(ITB) 1973년 학과장을 지낸 자카르타예술원(Jakarta Art Institute)을 포함한 많은 인도네시아 예술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최근 스리하디씨는 마지막으로 교편을 잡았던 반둥공과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지만 가끔 이 대학과 자카르타예술원에 출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직업이 화가이던 그렇지 않던 한 화가의 그림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의 생활패턴과 그가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이야기, 주로 다루는 소재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조금은 그의 그림을 대하는 나 자신의 무게감도 덜어질 것이다. 하지만 평론가가 있고 비평가가 존재하듯이 그가 말하는 그림에 대한 생각은 그의 생각일 뿐 그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거의 전적으로 감상자의 몫이 되고 만다. 감상자의 의견이 많고 다양할수록, 즉 많은 해석들이 잉태되어 나올수록 화가



Mountain Merapi and Borobudur – State of Meditation 2006
Oil on Canvas 130 X 120 cm

의 그림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작품(?)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짧은 시간 그와 나눈 대화 속에서 그의 그림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아냈다.

그 하나는 기본의 중요성이다. 그가 어렸을 적 그가 그림을 배웠던 미술선생님과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이 치고는 무척 어른스러운(?) 모습을 그는 보였다.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단박에 나눠버리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습성을 무시하고 그는 선생님의 지도를 거부하지 않고 따랐다. 배우기 전 그에게 좋고 나쁘고, 맞고 맞지 않고를 따지기 전에 먼저 배우고 완전히 습득된 후 그 배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다. 이러한 우선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는 그의 어른스러운 행동이 그를 교육자의 길로 안내했던 것 같다. 그는 끝없는 학업에 열중했고 학업을 마치고는 다시 졸업했던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그의 제자들에게 미술과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열적인 일생을 바쳤다.

또 하나는 교육의 길을 걸으면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 예술의 진실이 왜곡된 상식과의 투쟁이다. 우리는 흔히 화가를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그림이 풍경이에요? 인물이에요?” 아

니면 “추상이에요? 구상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은 그림의 형식과 소재에 관한 질문이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는 화가의 작품세계와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다. 사실 “그림의 형식과 소재는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어색하긴 마찬가지로 보인다. 스리하디씨는 화가이자 동시에 교육자이면서 풍경과 인물, 추상과 구상 사이에서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고 생각된다.

그럼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의 그림을 보도록 해보자. 미국유희에서 귀국한 후 그의 그림은 이전과는 다른 구상의 형태를 띠었다. 주로 수채물감과 펜을 사용하여 그린 그의 그림은 보통의 예쁜 풍경화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 그의 그림은 주제에 있어서 커다란 두 줄기 지평선과 수평선과 함께하는 보로부두르 사원(Candi Borobudur), 해변과 인도네시아 무희(Penari Indonesia)로 압축이 되었다.

형식적인 면에서 두 그림을 살펴보면 각각의 주제에 다른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사원과 해변을 주제로 한 그림들은 선과 색에 있어서 상당히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추상성을 띄고 있다. 반면 무희들은 인물과 의복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구체성을 훨씬 드러내고 있다. 즉 추상적인 형식을 통해 풍경(보로부두르 사원, 해변) 그림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추상-풍경) 구상적인 형식을 통해 인물(인도네시아 댄서) 그림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구상-인물).

스리하디씨가 기본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보로부두르 사원의 형상과 그의 작업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광활한 대지 위에 우뚝 서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그의 말에 의하면 ‘토대, 기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고 후광을 내며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사원은 그가 염원하고 또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바라고 있는 튼튼한 토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여진다. 또한 스리하디씨는 사진기를 이용하는 법이 없다. 무희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화려한 의상 등은 그이 타고난 기억력과 연필과 스케치북이라는 간단한 그의 그림도구들로 새로이 태어난다.

칠순을 훨씬 넘기고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그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뿜어 나오는 그의 예술적인 정열과, 교육과 민족을 바라보는 그의 깊이, 왜곡되어 일상화된 상식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그를 위대한 교육자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Bedboyoy Ketawang – Hamardiko, Homage to the late P.B XII 2005
Oil on canvas 150 X 300 cm



기사제공 : Klub Arto

Top 10 인도네시아 대학

인도네시아 대학들이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의 세계 최고 대학들과 견주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인도네시아 대학(U.I), 가자마다 대학(UGM), 보고르 농과대학(IPB) 등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왔고 최근 20년 동안 사립대학들이 더 우수한 시설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방대한 커리큘럼을 지니고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Binus(Bina Nusantara University)나 UPH(Pelita Harapan University) 같은 사립대들은 보다 국제적인 감각의 무기로 하여 인도네시아 고등교육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한 예로 UPH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외국인을 총장(Sheldon Nord)으로 영입한 학교가 되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짧지 않은 대학 역사 동안 인도네시아 대학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인도네시아인 대학지망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학지망생들에게 대학정보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모 잡지에서 2008년도 인도네시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톱 10위를 뽑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총 32개 항목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시도한 이번 조사에서 그 결과의 평가에 앞서 한눈에 각 대학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지망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기준

표준화된 평가기준으로 우선 크게 1.대학 우수성, 2.학생들의 학업 열정 & 캠퍼스 역동성, 3. 대학의 사회영향력이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점검요소에 점수를 부여 최대포인트를 440포인트로 정하였다. 대학 우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의 규모와 학과의 다양성, 학부 수준, 학술&연구 수준, 국제화 정도를 다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고 그 중 대학의 규모와 학과의 다양성에 80이라는 최대 포인트를 주었다. 특히 의학부, 법학부, 경영학부가 대학의 우수성을 가리는 요소로서 각각 10포인트를 최대 포인트로 책정했다.

학업 열정 정도 & 캠퍼스 역동성 정도를 측정 영역에서는 교육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교시설(시설의 환경친화 여부, 도서관, 체육, 음악, 예술, 식당, 학생회관 등)이 최대 80포인트로 대학의 수준을 정하는 중요요소로 정해졌다.

또한 사회영향력에서는 대학과 학생들의 사회영향력, 취업률, 대학유산 및 역사에 각각 최대포인트 30의 큰 포인트를 부여하였다.

U.I vs UPH

표준을 통한 대학의 순위를 정한 결과 UPH가 총 440만점에 356점으로 사립대부분 최고 우수 대학으로, UI가 366점을 얻어 국공립대 부문 최고의 대학으로 선

Top 10 인도네시아 대학

정되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톱 10개 대학을 비교해 볼 때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UPH는 대학 규모와 학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시설, 학업열정정도, 국제프로그램과 이와 연관된 캠퍼스 시설들에서 인도네시아 전체 사립대학 중 최고의 평점을 받았다. 하지만 UI나 BINUS(Bina Nusantara University)는 학교 시설면에서는 조금 뒤쳐지지만 기초정보기술을 다루는 학술&연구와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이제 약 10여 년의 역사만을 지닌 UPH를 훨씬 앞질렀다. UI는 현 재정장관인 Sri Mulyani Indrawati와 최고의 경제인인 Chatiba Basri, Faisal Basri, Syahrir 등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어 최고 명성의 경제학부로 평가

가자마다 대학은 건축 이외에 법학부로서도 인도네시아 최고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보고르농과대학은 농과대학에서 독보적인 존재이다. 현농업부장관 Anton Apriantono, 전 농업부장관 Bungaran Saragih, 전 해양수산부장관 Rokhmin Bahuri가 이대학 출신이다. 수실로 밤방유도요노 대통령이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간호학에 관해서는 수라바야에 있는 Airlangga 대학(Unais)가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다. 1954년 설립된 이 대학은 인도네시아 대학(UI)에 의해 운영되었던 의과대학, 치과대학이 1948년 동부자바로 이전된 이후로 발전되어왔다. 현재 총 11학부를 지니고 있는 이 대학은 열



되었다. 또한 UI는 비즈니스와 Management 영역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다.

한편 Trisakti 대학은 모든 대학가운데 가장 활발한 학생 단체 활동을 보여 가장 역동적인 대학으로 평가되었다.

반둥공과대학(ITB)은 정보과학, 광산, 펌트톨레움, 지리학, 화학분야에서 타대학과 비교를 거부하고 있다. 건축과를 졸업한 수카르노 대통령과 하비비 대통령이 이 대학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 건축에 관해서는 반둥의 Parahyangan 대학과 족자의 가자마다 대학이 타 대학과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대병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동남아 대학 중 최고로 뽑힌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는 반둥의 빠자자란 대학이 UI 다음으로 꼽힌다. 과거 10년 동안 빠자자란 대학 졸업생들은 세계 저널리즘과 홍보의 큰 영향을 주었다.

간호학부에 있어서는 중부자바 스마랑에 있는 디쁘네고로 대학(Undip)이 최고로 꼽힌다. 매해 2000여명의 졸업생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근무를 떠난다. 또한 디쁘네고로 대학은 수산과 해양지질 학부에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학부로 명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대학

최근 인도네시아 사립과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국제수준의 대학’을 표방해 왔다. 하지만 슬픈 것은 그 기대감이 정부의 적은 재정 지원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독립 후 6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법이 정한 20%의 교육비 예산을 한번도 책정하지 않아왔다. 2008년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에서 교육부는 54억 달러를 책정 받았다. 이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11% 오른 금액이지만 여전히 국가 총예산의 5.7%에 불과하다. 그 중 고등교육에 책정된 예산은 16%로 약 10억 달러에 불과하고 이 예산은 82개 국공립대학과 400개 사립대학에 배정되니 배정액은 충분치 못하게 뻥하다. 법이 정한 각 지방정부의 교육비 예산도 총 예산의 20%에 이르지 겨우 몇 개 지방정부만이 시행한적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교육비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07년 말 국회 연설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는 교육이 그의 우선순위 중 네 번째에 속한다고 했다. 농업, 수산업, 임업, 시골 개발 부흥을 위한 투자와 수출성장 및 고용창출이 최우선이며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관리가 3순위에 올라있고 교육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교육 전문가인 H.A.R. Tilaar는 중국정부가 2007년도 정부 총 예산 2630억 달러의 37%인 850달러를 교육에 책정한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는 중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교육 예산은 2006년 도 보다 15.7% 늘어난 국가 예산비율을 뛰어넘는 19.5%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곡선을 그릴 때부터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원인 Irsad Sudiro씨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모두 교육분야를 투자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적 투자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기관 자격의 변화

2000년도 이후 정부는 국가교육부를 통해 몇몇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격을 국유법인(BHMN)의 자격으로 변화를 시켰다. 인도네시아 대학(U.I)가 첫 번째로 적용된 대학이 되었다. 현재, 교육법인(Badan Hukum Pendidikan- BHP)으로서의 두 번째 법인체계가 준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컨셉(BHMN과 BHP)은 고등교육기관을 자치교육기관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유동적인 자치교육을 허락함과 동시에 재정 위기 시 정부의 교육기관 지원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서 국민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인(BHP)대학은 그들의 보다 더 독립적인 자치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안에서 각 대학은 더욱 창의적이어야 하며 관료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불행한 것은, 고등교육 기관 대학 자율 시스템 구축으로서 상업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7개 국유법인(BHMN)대학들이 약육강식의 세계인 신 다윈주의에 내몰려 지고 있다. 큰 재정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학이 작은 재정의 대학을 삼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기관들을 이윤창출 기관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현상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매년 국유법인(BHMN)대학들의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Fasli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부 국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은 감축되지 않을 것이고 매년 고등교육기관 재정과 장학금, 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교육법인(BHP)대학 관리법 초안에 이미 교육비의 3분의2가 운영비, 투자, 장학금, 교육보조금을 통해 정부에 의해 보장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올 교육 예산 54억불은 40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주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생들은 적어도 매년 2000달러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국·공립대학 Top 10

대학 우수성

		최대점수	University of Indonesia	Gajah Mada University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Bogor Institute of Agriculture	Padjadjaran University	Airlangga University	Hasanuddin University	Surabaya Institute of Technology	Diponegoro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Sumatra
I	규모와 다양성	80	80	80	45	42	64	62	62	36	62	61
1	30개 학과 이상	10	10	10	10	7	9	8	8	6	8	8
2	학부수	40	40	40	30	30	40	34	32	30	33	32
3	의학부	10	10	10	0	0	5	7	7	0	7	7
4	법학부	10	10	10	0	0	5	7	7	0	7	7
5	경영학부	10	10	10	5	5	5	6	8	0	7	7
II	학부 수준	40	25	26	26	35	29	27	23	31	29	23
1	학생/교수 비율	20	20	20	20	18	14	13	12	15	16	11
2	외국 학부 회원수	20	5	6	6	17	15	14	11	16	13	12
III	학술 & 연구	30	30	20	21	18	19	22	18	25	19	20
1	전용 센터 & 프로그램	10	10	8	8	9	6	8	6	9	6	6
2	저작권/특허권	10	10	7	7	9	6	7	6	8	7	7
3	국제언론인용	10	10	5	6	9	7	7	6	8	6	7
IV	국제화	40	32	18	18	29	16	22	20	26	7	32
1	영어 프로그램	10	7	5	5	7	5	6	5	7	2	6
2	국제 프로그램	10	8	7	7	7	5	6	6	7	3	5
3	국제 학부	10	5	3	3	7	3	6	5	7	1	6
4	국제 학생	10	7	3	3	8	3	4	4	5	1	5

학업 열정 & 캠퍼스 역동성

I	학업 열정도	30	20	19	16	14	18	21	17	19	17	16
1	스포츠	10	8	6	6	5	8	7	7	8	6	6
2	예술	10	6	7	5	4	7	8	5	6	7	6
3	음악	10	6	6	5	5	3	6	5	5	4	4
II	주거지와 기숙사 시설	30	16	14	14	14	13	21	23	25	18	20
1	수용 규모	30	10	8	8	7	7	13	13	15	12	12
2	시설 & 수준	10	6	6	6	7	8	8	10	10	6	8
III	학교 생활 & 활동	30	27	27	27	23	22	20	20	22	17	21
1	학생 단체	10	10	10	10	8	7	7	6	7	5	7
2	학생 프로그램	10	10	10	10	7	8	6	7	8	6	6
3	학생 환경	10	7	7	7	8	7	7	7	7	6	8
IV	학교 시설	70	46	44	45	36	39	39	31	34	26	20
1	환경 친화 & 현대성	10	7	6	7	7	6	6	4	6	5	4
2	도서관 시설	10	8	7	7	5	8	6	4	5	5	3
3	스포츠 시설	10	7	7	7	6	6	6	5	5	4	3
4	음악 시설	10	6	6	6	5	5	5	5	5	2	2
5	예술 시설	10	6	6	6	4	4	5	3	4	2	2
6	식당 시설	10	5	5	5	3	5	5	5	4	4	3
7	학생 회관	10	7	7	7	6	5	6	5	5	4	3

사회 영향력

I	사회 영향력	30	30	30	28	23	18	15	15	12	20	15
II	취업률	30	30	30	26	22	20	15	14	13	19	12
III	대학 유산 & 역사	30	30	30	30	27	24	15	15	15	20	10
총 계		440	366	338	296	283	282	279	259	258	254	230

인도네시아 사립대학 Top 10

대학 우수성

		최대점수	Pelita Harapan University	Trisakti University	Tarumanagara University	Atmajaya University	Parahyangan University	Bina Nusantara University	Muhammadiyah Malang University	Maranatha University	Satya Wacana University	Petra University
I	규모와 다양성	80	80	80	80	80	80	38	50	70	50	45
1	30개 학과 이상	10	10	10	10	10	10	8	10	10	10	10
2	학부수	40	40	40	40	40	40	20	30	30	30	35
3	의학부	10	10	10	10	10	10	0	0	10	0	0
4	법학부	10	10	10	10	10	10	0	0	10	0	0
5	경영학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
II	학부 수준	40	33	17	15	18	18	30	17	12	15	12
1	학생/교수 비율	20	15	12	13	13	13	15	12	12	12	12
2	외국 학부 회원수	20	18	5	5	5	5	15	5	0	3	0
III	학술 & 연구	30	14	12	6	8	6	6	6	0	6	0
1	전용 센터 & 프로그램	10	10	6	2	4	2	2	2	0	2	0
2	저작권/특허권	10	2	3	2	2	2	2	2	0	2	0
3	국제언론인용	10	2	3	2	2	2	2	2	0	2	0
IV	국제화	40	31	14	14	15	12	36	11	2	6	4
1	영어 프로그램	10	10	5	5	5	4	10	2	0	2	2
2	국제 프로그램	10	8	4	4	5	4	10	4	2	2	2
3	국제 학부	10	8	3	3	3	2	6	3	0	2	0
4	국제 학생	10	5	2	2	2	2	4	2	0	0	0

학업 열정 & 캠퍼스 역동성

I	학업 열성도	30	30	15	13	13	15	6	9	14	12	14
1	스포츠	10	10	6	5	4	6	2	4	5	5	6
2	예술	10	10	4	3	4	4	2	2	6	4	3
3	음악	10	10	5	5	5	5	2	3	3	3	5
II	주거지와 기숙사 시설	30	30	10	10	6	6	0	6	4	5	0
1	수용 규모	30	20	5	5	3	3	0	3	2	3	0
2	시설 & 수준	10	10	5	5	3	3	0	3	2	3	0
III	학교 생활 & 활동	30	26	27	25	23	21	19	22	21	21	22
1	학생 단체	10	7	10	9	8	7	6	8	7	7	8
2	학생 프로그램	10	7	9	9	8	7	6	8	7	7	7
3	학생 환경	10	10	8	7	7	7	7	6	7	7	7
IV	학교 시설	70	64	29	33	30	27	28	22	25	28	25
1	환경 친화 & 현대성	10	10	3	4	4	5	6	4	4	5	4
2	도서관 시설	10	10	5	6	6	5	7	4	4	5	4
3	스포츠 시설	10	8	4	3	3	3	2	3	3	4	3
4	음악 시설	10	8	3	3	3	3	2	2	2	3	2
5	예술 시설	10	8	4	5	3	3	2	2	3	3	3
6	식당 시설	10	10	5	6	4	4	6	3	5	4	5
7	학생 회관	10	10	5	6	4	4	3	4	4	4	4

사회 영향력

I	사회 영향력	30	20	24	15	20	15	15	20	12	14	10
II	취업률	30	20	20	20	20	15	28	13	12	13	12
III	대학 유산 & 역사	30	8	15	8	10	15	5	10	6	7	7
	총 계	440	356	263	242	243	230	211	186	178	177	151



인도네시아인이 사랑하는 예절들!



자료 출처 :
인도네시아어 급하신 분을 위한 표현백서
(이연 지음)

섬세함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인들

우리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어는 별 다른 경어의 표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휘나 문장을 끝맺는 표현 등에 특별히 존대어가 없지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처럼 격의 없는 인도네시아어 이면의 언행에 있어 예의바름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절에 대한 소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halus와 Kasar 개념에 대한 이해이지요. Halus란 '부드럽다', '섬세하다', '교양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의범절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에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으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무엇보다 사교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kasar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겠죠?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일체의 예의는 모두 halu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서로 칭찬해주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인 시각과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며, 또한 직선적인 대화법보다는 간접적이고 은밀한 대화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며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호칭과 어휘를 사용해 주세요!

영어에서 2인칭 대명사, you는 상대방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

2인칭 대명사로는 Anda와 kamu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란, Anda는 '당신'이라는 의미이고 kamu는 반말로 '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Anda는 완전한 경어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한국어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지요.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a란 오히려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연장자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남자라면 Bapak 혹은 Pak, 여자라면 Ibu 혹은 Bu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예의바른 표현입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세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이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이 현지어를 구사하면 즉시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실제로 영어보다 현지어를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치는 곤란한 문제도 많이 피해질 수 있었으며 좀 더 쉽고 편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적절한 현지어를 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절한이란 유창함과 능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어에는 formal한 표현과 informal한 표현(이 경우 현지어로는 bahasa gaul이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formal한 표현과 informal한 표현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친구의 예쁜 외모, 멋진 성격, 좋은 매너 및 탁월한 능력에 대한 당신의 감탄. 지금 감탄하는 순간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칭찬해 주세요. ‘넌 예쁘구나, 무지 성격이 좋구나, 그래서 넌 짱이야!’

1. 훌륭해! Bagus!

Baik이 그저 ‘좋다’라는 의미라면 bagus는 ‘무지 좋다’라는 액설런트급 표현입니다. 아끼지 말고 자주 자주 사용해 주세요.

2. 예쁘네! Cantik

쌍꺼풀이 진 큰 눈이며 긴 속눈썹까지...인도네시아 여성들 정말 이뽕보인다면 ‘cantik’이라고 속삭여 주세요.

3. 멋져!(잘생겼어!) Ganteng!

Ganteng은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남자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니버설한 기준(?)에서 ‘미남이다’라고 여겨질뎌 보통 cakep(짜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여자가 미인일 때도 쓸 수 있어요.

4. 너 정말 똑똑하다.

Kamu pintar banget.

두뇌회전이 빠른 친구, 하나를 말해도 열까지 알아듣는 친구, 그 친구의 영리함을 망설이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까무 뽀파르 방앗’. 이때 ‘banget’은 ‘매우’라는 뜻의 속어입니다.

5. 넌 짱이야.

Kamu hebat.

‘대단하다’, 이를테면 ‘캡송이다’라는 표현인데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어올려주면 더 좋겠죠?

6. 네가 해낼 줄 알았어.

Aku tahu kamu bisa.

마침내 결실을 이룬 친구에게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라고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든든한 지지이며 우정이란 말입니까.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해요!

친구가 너무나 지쳐 숨털같이 가벼운 것털 하나만 더해져도 금방 쓰러질 것 같다면 보고만 있기 안타깝죠? 조금만 더 버티어 내면 뭔가 이루어 낼 것 같은데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입니다.

1. 좋아 계속해! Bagus, teruskan!

Bagus는 칭찬뿐만 아니라 격려에도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자는 말이지요.

2. 포기하지마. Jangan menyerah.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친구가 Aku mau menyerah ‘나 포기하고 싶어’라고 말한다면...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포기하지 마’라고 해주세요.

3. 힘내.

Semangat ya.

영어의 cheer up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아자, 아자, 파이팅!급에 해당하는 고나 할까요.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이런 짧은 표현에 보통 ya를 특별한 의미없이 애교 있게 덧붙입니다.



4. 자, 우리 쭈욱 가는 거야!

Maju terus pantang mundur!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행인것은 혼자가 아닌란 것이지요. 우리 팀에 다친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칩시다. ‘진진만 있을 뿐, 후회는 없다’

5.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Kamu pasti bisa.

위축되어 있는 친구에게 ‘넌 할수있어’ Kamu bias 라는 응원으로 힘을 실어 주세요. Pasti가 첨가되면 ‘확실하게’라는 의미가 있어 강조하게 됩니다.

6. 모든게 가능해, 그러니 낙담하지마.

Semua mungkin, jadi jangan putus asa.

Mungkin은 ‘아마도’라는 뜻 이외에도 ‘가능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Putus asa는 ‘절망하다’는 뜻입니다.

7. 모든게 잘될 꺼야.

Aku yakin semua akan menjadi baik-baik saja.

‘모든게 잘 풀릴거라고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Aku yakin이라는 표현은 ‘난 ~을 확신해/란 표현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2)

(Undang-Undang Dasar/UUD)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2. 정제 및 주권

헌법 제1조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이며,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법에 의거하며,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권재국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워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 개정하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국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를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4. 정부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4.1. 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정, 공포, 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법률, 비상조치령, 정부령, 대통령령, 대통령 지시, 장관령, 청장규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반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 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Propinsi) 숫자의 과반수 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 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면 1차 투표에서 1,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최장 두 임기인 10년 집권이 가능하다. 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 선출됐으므로 5년 후인 2009년 임기가 만료되며, 2009년 대선에서 다시 선출되면 현행 헌법에서 허용되는 집권 시한은 2014년까지이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해 반역, 비리, 뇌물, 형량이 긴 범죄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가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의회에 추천하고,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강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에 따라, 예를 들면,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sor”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pinsi)로 구성되고,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는 주, 군 및 시 단위로 실

인도네시아 헌법(2)

(Undang-Undang Dasar/UUD)



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이 33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트라 육지에는 i). 아체 자치주, ii). 북부 수마트라주, iii). 리아우주, iv). 서부 수마트라주, v). 잠비주, vi). 벵골루주, vii). 남부 수마트라주, viii). 람뽕주가 있으며,

6.1.2. 수마트라 도서에는 ix). 리아우 군도주, x). 방카 벌리똥주가 있으며,

6.1.3. 자바섬에는 xi) 반똥주, xii). 자카르따 수도 특별주, xiii). 서부 자바주, xiv). 중부 자바주, xv). 족자카르따 특별주, xvi). 동부 자바주가 있으며,

6.1.4. 깔리만탄섬에는 xvii). 서부 깔리만탄주, xviii). 중부 깔리만탄주, xix). 남부 깔리만탄주, xx). 동부 깔리만탄주가 있으며,

6.1.5. 술라웨시섬에는 xxi). 북부 술라웨시주, xxii). 고론팔로주, xxiii). 중부 술라웨시주, xxiv). 남부 술라웨시주, xxv). 동남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6.1.6. 발리섬은 xxvi).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xxvii). 동부 누사 땡가라주, 서측은 xxviii). 서부 누사 땡가라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6.1.8. 말루쿠 제도의 남측은 xxix). 말루꾸주, 북측은 xxx).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6.1.9. 빠부아섬(구명은 이라안 자야)에는 xxxi). 서부 빠뿌아주, xxxii). 중부 빠뿌아주, xxxiii). 동부 빠뿌아주가 있으며,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회, 군에는 군의회,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

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체제의 중심은 군(Kabupaten)과 시(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

인도네시아의 입법기관은 국민협의회(MPR), 국회(DPR) 및 지방대표 국회(DPD)가 있다.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식의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의 양원제도 아닌 특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 기능,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7.1.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7.2.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7.3.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7.4.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지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7.5.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7.6.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7.7.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8. 지방대표 국회(Dewan Perwakilan Daerah)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지붕 위에 다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8.1.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국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8.2. 지방대표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한다.

8.3. 지방대표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분리, 합병에 관한 사항,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할 수 있으며, 국가 예산, 세금,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4. 지방대표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분리, 합병에 관한 사항,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국가 예산, 세금,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독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8. 총선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전체 유권자가, 자유롭게,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공정하게 실시한다.

8.1.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대통령,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8.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8.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8.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9. 재정

국가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예산이어 한다.

9.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9.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9.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9.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0.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감사원은 그 본연의 기능이 감사이므로 논리상으로는 행정부를 감사하는 입법부에 소속되는 것이 마땅하나 인도네시아의 감사원(BPK)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국회, 지방대표 국회, 지방의회 혹은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감사위원은 지방대표 국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간에 호선한다.

(다음 호에 계속)

발리에서 생긴 일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 연전에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촬영지이기도 한 발리 섬은 인도네시아에 속한 영토라는 것은 잘 몰라도 인기 있는 해외 관광지로는 잘 알려져 있다.

신부부부의 허니문 여행지 뿐 아니라 친구 및 가족단위의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는 곳이다. 연간 10만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발리섬을 찾고 이중 60~70% 이상이 신혼부부이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과거 제주도를 찾던 신혼부부의 허니문 여행지가 발리로 옮겨진 셈이다. 또한 인근 호주뿐 아니라 유럽 등 서양 사람들도 발리를 최고의 휴양지로 택해 많이 찾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보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해변에 앉아 적도의 붉은 노을에 반사된 인도양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 서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일이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낭만적인가?

그러나 세상은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도 있는 법인가 보다. 이런 발리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2002년과 2005년, 과격 테러분자에 의한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호주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한국인 관광객도 두 사건을 통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변을 당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던 경험에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의 치안이 불안할 경우 관광수입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탓인지 발 빠르게 대응하여 테러 배후세력을 검거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고 현지의 한국인 여행사 등 관광업 종사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 친 결과 그 이듬해인 2006년은 전 반적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으며 그 해 세모까지 큰 사건사고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기 직전 성탄절을 넘긴 다음날 우리의 이런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국인 신혼부부가 숙소에서 현지의 폐장도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다. 크리스마스이브 날을 자신들 생의 최고 기념일로 정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택했을 허니문 여행지에서 변을 당한 것이다. 부부는 둘 다 학원 강사들로 교제를 통해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좀 더 호젓한 분위기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겠다는 로맨틱한 생각과 많은 관광객이 붐비며 값도 비싼 호텔보다는 외곽지역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방갈로 형태의 저렴한 숙박시설이 있다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직접 예약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단독저택 형태의 방갈로는 전용 수영장이 있고 대형 침실을 갖추고 있는 등 신혼부부들이 그들만의 시간을 만끽하기 좋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외딴 지역에 다다 동네어귀에서 사설경비원들이 출입자를 감시하는 정도 외에 특별한 보안시설이 없어 안전 상 다소 허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안전상의 허점에 이들 신혼부부가 희생되었던 것이다. 경찰관의 야간 순찰이 거의 없고 신혼부부들이 고가의 귀중품 등을 소지한 것을 노리고 강도들이 침입한 것이다. 심야에 갑자기 흉기를 들고들이 닥친 피해 3명에게 신랑은 신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도들에게 저항하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신부는 방갈로 밖으로 뛰쳐나가 급히 몸을 피했으나 신랑은 머리 등을 흉기로 맞아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들은 신부를 뒤따라가 낮으로 등 부위를 찔러 심하게 다치게 된 것이다.

한밤중의 낮선 외국 땅에서 범죄자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친 신부의 놀란 가슴을 상상해보면 실로 끔찍한 사건인 것이다. 다행스럽게 피해들은 어리숙한 시골 범죄꾼들인지 신혼부부의 고향소리에 놀라 더 이상 공격치 않았고 카메라 1대만 빼앗아 달아났다.

대사관은 신랑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우리 여행객이 강력사건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 하나로 사안의 중대성은 정해진 것이다. 때마침 연말행사로 공관은 여러 일정이 겹쳐있었으나 신혼부부 강도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통상의 경우 사건담당 영

사가 현지로 출장을 가서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귀국지

원, 범인 검거를 위한 현지경찰과의 협조 등으로 이루어지나 공관에서는 대사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결정하셨다. 발리가 한국 여행객에게 차지하는 비중과 이미지를 감안한다면 현지 주지사,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사건 해결과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사 1명을 대동하고 사건발생 하루 만에 대사일행이 발리에 직접 갔다. 현지 경찰, 주정부는 외국 대사가 직접 자국민 피해사건 현장에 온다는 데 대해 적잖이 당황하였다. 평소 외국인 사건사고에 다소 미온적인 그들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을 특실로 제공하는가하면 치료비 전액 지원

가 원할 시 여행일정 무상제공을 약속하였고 지방경찰청장

과 피해자

은 모든 숙박시설에 대해 안전등급을 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체제를 가할 것과 범인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약속하였다.(사건 일주일 후 경찰은 용의자를 파악해냈고 그들이 다른 섬에서 원정 온 자들이라는 점을 공관에 알려주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6개월이 넘어서야 범인들을 전원 검거하였다)

사건 초기 신혼여행의 달콤함이 송두리째 날아 가버린데 대한 분함과 범죄자로부터 입은 충격으로 두려움과 불안 증세를 보이던 신혼부부는 대사의 직접방문과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 한인회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급속히 회복하였다.

이후 이들은 일주일의 여행일정을 다시 오붓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보내고 나의 환송을 받으며 발리 공항을 떠났다. 공항에서 애써 눈물을 감추던 신부는 자신의 등에 있는 상처가 한인회, 대사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빨리 회복되었고 놀란 가슴도 쉽게 가라앉아 너무 감사하다며 결국 눈물을 쏟아놓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눈물의 의미가 그동안 정든 동포애의 눈물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그들은 나에게 무사히 귀국하여 지난 발리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한 채 건강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연락해 왔다. 해외여행이 빈번해지는 요즘 여행의 즐거움은 늘 자신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은 사건이었다. 일부 여행업체의 지나친 값싼 상품에 현혹되어 자칫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상공회의소 주간소식

♣ 석유공사 산업용 LPG 가격 인상

석유공사(Pertamina)는 가스부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LPG bulk와 50kg 짜리 가격을 35%~25%까지 재인상했다. LPG bulk의 가격은 Rp. 5,852/kg에서 Rp. 7,329.7/kg, 50kg짜리의 가격은 더 높은 Rp.7,932/kg이 다.

LPG bulk는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50kg포장은 호텔, 식당, 병원 및 소화주택용으로 사용된다. 상기 두부문은 석유공사가 장악하고 있는 보조금이 없는 LPG 가스 시장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공사 홍보담당 부사장 위스눈또로는 1월 7일부터 인상이 적용되며, 2007년 석유공사의 손실은 3조 루피아로 이전의 1조 루피아와 비교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스의 기준이 되는 석유가가 급속히 오른 반면 9월 1일 이후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1일 석유공사는 LPG 50kg의 가격을 Rp. 4,250에서 Rp.5,852로 올렸었다.

한편, LPG 12kg급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을 것인데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LPG 12kg급은 인상할 경우 사용자가 너무 많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공사는 또 한 bulk와 50kg급의 가격을 다른 산업용 석유연료들과 같이 매월 또는 2주마다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08. 1.8일자)

♣ 경제 종합 : 부통령,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적정

정부는 유가가 미화 100달러에 이르더라도, 금년도 예산 적자가 목표 내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은 다우존스(1월 3일자)에 인용된 부통령 유습칼라의 말이다.

“국가 예산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연료보조금은 증대될 것이지만, 석유가스 분야의 수입도 증대될 것이다.” 고 유습칼라는 말했다. 칼라는 또한 유가인상이 루피아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국내의 낮은 환율이 수출을 강화시켜 인도네시아로 외화가 더 많이 유입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은 그 하루 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첫 개장식에서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이 7%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경제성장은 소비와 인프라 트럭처 부분의 투자로 이끌어질 것이며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영향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는 인하될 것이다.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6.3%, 2008년도는 6.8%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2007년도 경제성장이 6%이상

도달하고 2008년에는 7%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는 인도네시아 경제 요소가 향상됨에 따라 좋아질 것이고 투자 역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며 정부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프라스트럭처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은 기준금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은행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은행은 8%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은행 총재 부르하누딘 압둘라는 인도네시아 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인하 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출지수는 지난 11월 CPO의 영향으로 4.3%인하되어 미화 98억1천만불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0.5%증가해서 미화 75억 4천만불에 이르고 무역흑자는 미화 22억 7천만불로 10월의 39억9천만불 보다 하락했다.

CPO 수출감소는 날씨요인 때문이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는 원료와 장비 수입 증가로 수입이 증가되었다.

8월의 실업률은 9.1%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 전해 10.3% 보다 하락한 수치이지만, 2009년 10월에 5.1%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에는 여전히 요원하다.

농업부 장관 안톤 아프리안토노는 현재 중부자바와 동부자바에서 발생한 홍수가 국내 쌀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의 쌀 생산량은 홍수의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2월에는 생산량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인니 경제 지표 :

	10월	11월	07년 1월-11월/ 06년 1월-11월	2007년 1월- 11월 무역흑자
총 수출	\$ 10.25 billion	\$9.81 billion	\$103.07 billion	\$35.53 billion
비 석유가스 부문 수출	\$8.27 billion	\$7.73 billion	n/a	
	11월(연간)	11월(월별)	12월(연간)	12월(월별)
인플레이션	6.71%	0.18%	6.59%	1.10%
	2005	2006	2007상반기	2007년 3/4분기
GDP성장률	5.60%	5.5%	6.1%	n/a
외국인 여행객 수	10월	11월	증감(월별)	증감(연간)
	351,400	398,983	8.6%	14%

자료제공 : 통계청

♣ 마리장관, 2007년 대통령령 제 111호 제정 설명회 개최

-2007년 대통령령 제 77호(투자금지 및 조건부 허용목록)에 대한 개정으로 기업경영에 확실성을 주기 위한 조치

2008년 1월 14일 월요일, 인니정부는 국가수출 및 투자진흥팀(Timnas PEPI)을 통해 2007년 12월 27일에 발표된 대통령령 제 111호/2007에 관한 설명회를 여러 기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상기 대통령령은 2007년 제 77호에 대한 개정령으로 투자금지 목록 및 조건부 투자 허용분야 목록에 관한 것이다. 본회의에는 한인상공회의소도 참석했다.

국가수출및투자진흥팀은 1월 14일 상업부에서 상업부 장관 마리 빵에스투(수출 및 투자 진흥정책 제 1실무위원장)의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 인니 상의(KADIN)지도부와 국내의 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상기 신대통령령에 관하여 토의했다.

이에 앞서 경제조정부 장관 부디오노는 “본 개정은 2007년 제 77호 대통령령에 실린 규정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명확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부디오노 조정장관은 2007년 제 77호 대통령령의 개정은 정부 기관간,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대화의 결과로 2개 조와 첨부 1, 2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 5조를 변경하고 2A조를 새로 추가하고 투자금지 목록 및 조건부 허용 목록의 몇 가지 규정도 수정했다.

사업장 위치에 관한 2A조의 추가에 대하여 부디오노는 본 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전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기존 회사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금지 및 조건부 허용 목록에 있는 몇몇 분야의 수정은 분류코드를 수정하거나 몇몇 분야의 설명 및 보충설명에 관한 것들이다. (수출 및 투자진흥팀 보도 자료 2008.1.14일자)

♣ 기업은 Satgas K3(건강 및 작업 안전 관리팀) 설치 의무화

정부는 기업을 분류하여 중기업이상의 기업에게 Satgas K3(건강 및 작업 안전 관리팀)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재 발생수를 2008-2009년에 50%줄여 약 40,000건 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이주부 장관 에르만 수빠르노는 기업인이 건강 및 작업안전의 중요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재 발생수는 현재 95,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8-2009년에는 50%정도로 줄이려고 한다. 정부는 184,000기업을 분류하여 건강 및 작업안전(K3)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100명 이상을 고용한 중급 기업부터는 Satgas K3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고 1월 17일 목요일 안전 및 건강의 달 기념식에서 에르만이 밝혔다.

그는 산재 발생수를 줄이려는 목표는 법적 접근의 차원이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실질적인 국가적 운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르만은 기업들이 Satgas K3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이주부는 시행에 도움을 주고 회사에 K3 시행 감시단을 파견할 것이다.

상기의 Satgas K3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지식을 제공하여 건강 및 작업안전 인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주부는 또한 작업감독 및 진흥청장에게 K3에 관한 설명회등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 2003-2006년도 산재발생수와 보상금 규모

연도	산재발생수	보상금 규모 (단위 :십억루피아)
2003	105,846	190,6
2004	95,418	192,4
2005	95,023	219,2
2006	95,624	222,2

자료 : 인력진흥감시청

(Ditjen Pembinaan Pengawasan ketenagakerjaan)

♣ 산업유가와 보조금 연료유가 차이 커져, 보조금 오용 가능성 점점 높아져

연료보조금 적용 유가와 보조금이 없는 유가(산업유가)간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석유관련 전문가 쿠르투비에 따르면 연료 보조금의 오용을 막는 강력한 통제 체제가 따라야 한다.

2008년 1월 15일-2월1일간 비보조금(산업유가) 연료 5종의 가격은 2주전에 비해 평균 3-6.7% 재인상되었다.

석유공사(Pertamina)는 지난 화요일(1.15)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유가(Mean of Platts Singapore, MPOS)의 평균 2-6% 인상 및 미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화의 약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미엄유는 6.7%올라 리터당 Rp.7,341에서 Rp.7,833이 되었다. 석유는 3%가 올라서 리터당 Rp.8,091에서 Rp.8,366, 경유는 4.7% 인상으로 리터당 Rp.8,305에서 Rp.8,695로, 디젤유는 4.8%올라 리터당 Rp.7,747에서 Rp.8,116, 연료유는 5.4% 인상되어 리터당 Rp.5,496 에서 Rp.5,795 이다.

- 보조금 지급 유무에 따른 연료 간 가격 차이

월	석유 부문 가격차 리터당 Rp.	경유 가격차 리터당 Rp.
2007년 7월	3,926	1,825
8월	4,256	2,168
9월	4,312	2,238
10월	4,635	2,608
11월	4,860	3,101
12월	6,200	3,935
2008년 1월	6,336	4,017

자료 : 석유공사

◆ 주요 수출 성장세 둔화, 내수시장 장악 점차 약세

2007년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주요상품의 수출액 및 수출량의 성장이 약세를 보였다.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대 수출품목에서 세계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CPO(crude palm oil)의 수출액만이 증가되었다.

세계시장에서의 CPO가격 급등은 비록 CPO 수출량은 동기간 8.2% 감소했지만 2007년 CPO수출을 2007년 42%까지 증진시켰다고 상업부 장관 마리 뱅에스투가 지난 월요일(1.14) 열린 상업부 업무 보고에서 밝혔다.

마리에 따르면, 2007년 1월~11월간 수출은 16% 성장했고 이는 상업부의 목표인 14.5%보다 높지만, 2006년의 19.7%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며, 2007년 인도네시아 수출액 성장 둔화는 국제시장에서의 비 석유가스 분야 상품 평균가 인상이 기존의 가격인상폭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2007년 세계 무역량은 7%만 증가했던 반면, 2006년에는 세계 무역량이 9.2% 증가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계무역량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상업부에 따르면 2007년 수출물량이 일부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국내 소비량이 증가되고 국내가가 국제가보다 더 좋을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연합회장 베니 수트리스노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베니에 따르면, 비석유가스의 무역수지를 계산해보면 순수출량 성장은 단 5.13%에 불과하다. 이것은 실질분야의 수출실적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10대 수출품 중 CPO와 임산품의 두분야의 성장만 목표치를 충족시켰다. 그 두 목표도 가격 인상요인으로 인한 것이지 수출량 증대를 통한 것이 아니다.” 베니의 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주요분야의 생산활동이 감소되어 노동력 흡수 또한 낙관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편,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수입한 소비재의 점차적인 내수시장 장악으로 인해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섬유 및 봉제분야에서 예를 들면, 국내기업은 2007년도에 내수시장의 22%만을 차지했다. 2006년도에는 내수시장의 45%를 장악했었다.

경제 및 재정 개발 기구(index) 이사 파딜 하산은 인도네시아 수출성장세가 2007년 3/4분기에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 2006년 2007년도 비석유가스부문 주요 10대 수출품목 성장률(%)*

품목	2006	2007
섬유 및 섬유생산품	9.8	4.3
전자	-7.9	
고무 및 고무생산품	55.4	8.1
CPO	28.3	42.2
임산품	10.9	1.9
신발	12	-0.1
차량부품	20	1.4
새우	14.2	-7.1
카카오	28	8.9
커피	6.7	-4.6

자료 : 통계청, 상업부 자료주: * 1월~9월간 실질 성장

◆ 문단은 신발공장 인수에 인센티브 제공

공업부는 국제시장의 생산자와 바이어간의 관계 및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난 해 경영 부실로 문을 닫은 신발 공장을 인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을 닫은 신발공장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로 2007년 정부령 1호에 근거하여 소득세혜택을 줄 방침이다.

금속, 섬유기계 및 기타 상업 청장 안사리 부카리는 (주)동양, (주)스포텍 인도네시아, (주)코리넷아, (주)동조와 같이 바이어와의 관계가 아니라 경영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회사를 예로 들었다.

신발협회에 따르면 중국 신발회사인 칭록(Ching Luk Co.Ltd.)사가 (주)스포텍 인도네시아(한국계 외국인투자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인수작업은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 초에 스포텍은 생산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신발협회장 에디 위자나르코는 칭록사가 스포텍을 인수한 것은 여전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며, 칭록사는 국내 경제과정을 통해 스포텍을 인수했다.

- 2002~2008 신발산업 투자 현황

년도	투자액 (조 루피아)
2002	1,714
2003	1,748
2004	1,754
2005	2,152
2006	2,305
2007	2,635
2008	2,898

자료 : 공업부.

◆ 코린도, 현대 트럭 및 버스 판매에 박차

현대 트럭과 버스의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자인 코린도 모터스가 올해 8,000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판매 실적인 1,132대와 비교할 때 놀랍고 야심찬 수치이다.

코린도 모터스의 풍 루비스 마케팅 이사는 6종의 신형트럭과 40인승 버스 모델 1개를 런칭하여 올해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판매 이외에도, 코린도 중공업 사업부에서는 연간 만대의 버스와 트럭을 조립하기 위해 미화 4천만불을 투자했다.

알립니다 !!

상공회의소 주간소식 관련 문의사항이나 수신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남지화 이메일 : kocham@cbn.net.id

전화 : 021-527-7539 팩스 : 5296-0586

가룻(Garut)

- 잃어버린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찾아서



경기도 부천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김경렬

여행을 다녀오면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다.
물론 이번에도 그건 어김없었다.

“가룻 어때요?”

“음...(.....)...좋아요.”

...(‘여행’이라고 하면 흔히 일상을 떠나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 이번 가룻에 가서 정말 소중한데 한 순간에 잃어버렸던, 익숙한 것들을 다시 보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별로였겠다구요? 아니에요! 익숙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던 낯선 경험, 이것보다 더 큰 여행의 의미가 있을까요? 알아듣게 얘기해 보라구요? 네, 네...하지만 그 전에 먼저 차를 준비하구요. 아주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이번 인니문화탐방에는 인도네시아에 온 지 26년 만에 처음 자카르타를 떠나본다는 분, 손님을 집에 두고 무작정 오셨다는 분, 딸 만나러 서울 가는 비행기도 미루고 오신 분, 감기 몸살에 시달리면서도 친구들의 성화에 못이겨 끌려오신(?) 분, 16년 만에 친구들과 처음으로 외박(!)을 해 본다는 분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연의 ‘아줌마’ 부대와 신부님, 학생 세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완전 초짜(!)인 저까지 이렇게 모여 출발을 했습니다.

1) ‘아줌마’의 준말. 지하철의 문이 열리자마자 빈 자리를 파악하고 가방부터 던져 넣는 아줌마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솔직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곳에 제일 먼저 모습을 나타내는, 제 4의 힘을 가진 중년 파워 여성을 이르는 말이다.

점심으로 푸짐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삼발 맛있게 하는 집이 진짜 음식 잘 하는 집이라며 서로 여기 삼발 맛있다고 두 세 번씩 떠서 먹기 시작했죠. 허로는 맛을 느끼고 눈으로는 물에 떠 있는 수련을 바라보며 피부로 바람도 느끼면서요. 저처럼 이곳이 처음이라는 학생들은 날아드는 파리가 마음에 걸렸는지 슬그머니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어요. 콜라 맛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곳 음식이 처음엔 입맛에 안 맞는 게 당연하다 싶기도 했어요. 저도 처음인데 어땠냐구요? 하하하...제 식성 아시면서 뭘 물으세요? 저에겐 항상, 너무, 맛있죠. 거기서 ‘탈라뽀’를 먹을 수 있으면 인도네시아 사람 다 된 거라던데 전 가자마자 먹어서 주위 사람들 다 놀랬겠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맛본다는 건 여행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 문화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 위에서의 맛있는 만찬을 끝내고 우리는 그 다음 목적지인 Kawah Kamojang분



화구로 향했어요.

분화구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을 통과해야 하는데 버스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골목길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그 집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게 쪽 널려 있는 옷가지들, 아무렇게나 키우는 듯 보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정돈된 화분들……그렇죠? 옛날 우리 동네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마치 그때처럼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집들과 서로 맞대져 있는 기와와 기와들이 정겹기까지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동네를 찾은 건 저 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왜냐구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모두들 잃어버렸던 기억과 상상력이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Kawah Kamojang에는 20여 개의 분화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분화구는 4개예요. 거기에 얹힌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쭈마’들은 뿔어져 나오는 증기를 보면서 그 옛날 어릴 적 어느 때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더 재미있는 추억들을요.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하던 산신령님이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다’부터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이렇게 좋은 곳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고 벌써 온천부터 들어서고 음식점이 줄지어 들어서고 그랬다고……! 네, 그 소리에 말은 안 했지만 모두들 동감하는 기색이었어요. 모두들 알고 있었던 거지요, 왜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 동네를 잃어버렸는지를요.

여행 첫째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여행할 때 비가 오면 곳다고들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비에 젖은 나무 냄새, 풀냄새 기억나시죠? 얼마나 폐 속 깊은 곳까지 맑아지는 기분이던지. 그런 공기 좋은 산길을 우산 쓰고 걸으며 괜히 낭만에 젖을 수 있었으니까요. 또, 비가 좀 심하게 퍼부을 때는 잘생긴 총각이 양철질봉 아래 자리를 조금 내 주어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를 같이 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도네시아 말 “뜨리마까시”를 하고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가룟을 찾는 사람들은 꼭 사가지고 간다는 과자 ‘도돌’²⁾을 한아름 사들고 사공 경 선생님이 해주시는 양철성 씨의 일생³⁾에 대해 들으며 그가 묻혀 있

는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묘지로 향하는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타국에서의 그가 겪었을 외로움,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싸우면서 내내 겪었을 지독한 갈등……그 하나하나 상상하는 것조차도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묘지 주변에 향기가 강한 꽃, 봉아 감보자를 심어놓는데요, 그래서 누구는 그 꽃을 ‘무덤꽃’이라고도 하대요. 우리는 무덤꽃 대신에 준비해 간 향기가 좋은 국화와 빨간 장미 꽃잎, 그리고 이름모를 하얀 꽃잎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그의 묘비에 바쳤습니다.

이런, 이런, 얘기하는 동안 차가 식어 버렸네요. 다시 올게요. 왜요, 아...그 다음요? 너무 재촉하지 말아요. 차한 잔 마시구요. 앞으로 당신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낯선 곳에서 잠은 잘 잤냐고요? 아 참, 제가 그 애길 안 했던가요? 혹시 간간히 내리는 비 맞으며 까



2) ‘도돌’은 찹쌀가루에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Gula Merah)과 야자, 여러 종류의 과일을 으깨어 굳힌 맛이 단 과자이다. 우리나라의 양갱과 비슷하다.

3)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일본 식민지로 바뀌었을 때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전쟁포로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조선에서부터 끌려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양철성씨였다. 반강제로 끌려왔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수용소에서 포로감시를 하였고 인도네시아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이곳에 정착했다.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는 전쟁 전범 재판에 회부될 상황에 처했다. 그 때 부대에서 탈영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민병대 뺑에란 뺑 부대로 용감하게 싸운다. 한편, 그를 짝사랑하던 여인 에디는 질투로 부대의 위치를 네덜란드 군에게 밀고하고 만다. 이로 인해 뺑에란 뺑 부대는 전멸했다. 처음에 그의 묘비엔 일본인 이름과 인도네시아 이름만 적혀있었으나 95년엔 한국에서 그의 이름을 새긴 묘비를 가져와 교체했다.

만 밤하늘 아래서 온천해 보셨어요? 너무 낭만적이라고요? 네, 정말 그랬어요. 여행 와서 그 정도의 호사는 살짝 누려도 괜찮은 거죠? 그 날 밤 우리는 그렇게 수련 위에서 한 잔의 맥주와 시(詩)와 그리고 ‘쭈마’들의 일탈을 자축하는 수다로 하얏게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간 곳은 바틱과 실크를 제작하는 곳이었어요. 가룻은 아직까지 반동처럼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라서 그런지 갑자기 들이닥친(?) 우리들로 인해 바틱 가게 주인은 정신없는 듯 했어요, 한껏 신이 난 채 말이죠. 그 모습도 손님 대하는데 능숙한 큰 가게보다는 전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가게 한 편에는 바틱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딱딱한 바닥에 하루 종일 앉아서 독한 냄새를 맡아가며 한 달을 꼬박 걸려 바틱을 만드는 사람을 보니 바틱은 당연히 비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요, 실

럼요, 당연히 냉장고도 없지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사냐구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 못 살아요? Naga 마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데요. 자, 들어봐요.

Naga 마을 사람들은 사탕수수의 섬유질로 검은 지붕을 만들고 벽은 하얀 석회색으로 칠한 집에서 살아요. 이런 100여 채의 똑같은 모양의 집들은 빈부차이가 없고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지붕과 지붕이 맞닿아 있어서 앞집 뒷집에서 뭇 때문에 싸우는 지까지 분명 다 들릴 걸요? 정말이라니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붕끼리 서로 붙어 길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집집마다의 개별성도 존중해줘서 공동 빨래터에는 집집마다 개인 공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되 따로”, “따로, 하지만 또 같이”, 이 모습이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최고의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는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해맑게 웃어주고는 맨발로 뛰어가던 Naga 마을 아이들, 말 못하는 외국 관광객의 가벼운 목례에 환한 미소로 답해 주시던 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나는 그 환한 미소가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반가워 자꾸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죠.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고 나니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큰 방에 30여 명이 다 모여 앉아 닭다리 하나, 생선 하나를 손으로 덤석 덤석 잡고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것 마냥 먹는 서로 서로를 보며 우리는 웃음이 절로 터지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대청마루에 나와 앉으니 여흥이 시작됐어요. 넓은 마당에서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니 한 어르신께서 나와 전통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환영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음악 소리가 퍼져나가자 좀 전에 마을을 둘러볼 때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빨래 걸던 아낙도 잠시 손을 멈추고, 애기 엄마들은 하나 둘 썩 포대기에 아이들을 업은 채로, 동네 꼬마 녀석들은 옹기종기 계단에 모여 앉아서, 여자 아이들은 엄마 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마을 축제를 다 같이 즐겼어요. 할아버지 춤에 화답이라도 하듯 마을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자 Naga 마을 사람들 입에서 환호가 나왔어요. 모두들 재밌다고 웃으시는데 전 그

한 가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에고치가 얼마만큼의 실을 자기 몸에서 뽑아내야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더요. 누에고치 1개에서 보통 500에서 1000미터의 가느다란 실이 나오는데 그게 25개가 모여야 한 가닥의 실이 만들어 진대요. 정말 놀랍죠? 그것을 갖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손을 놀리고 발을 돌려도(발의 움직임에 따라 실크 문양이 달라지거든요.) 5미터 정도 밖에 짤 수가 없대요. 휴...정말 얘기만 들어도 대단하죠?

다음 코스는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Naga 마을이에요. Naga 마을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4) 김남희, 『겁 많고 소심하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걷기 여행 2 - 스페인 산티아고 편』에서 인용.

돌릴 힘' ⁴⁾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Naga 마을에서의 삶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8세기에 만들어졌다는 힌두 사원 CANG-KUANG 사원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특색이 있는 이유는 힌두탑과 함께 나란히 자바 지역 이슬람 첫 순교자의 무덤이 같이 있다는 데 있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 세상이 원래 살아서 이래야 하는데 죽은 후에나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 이곳 사람들의 종교적 포용력은 배울 게 많았습니다.

한비야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어서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돌았는데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더라는. 북반구에 사는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 곳 인도네시아에 와서 잃어버린 우리 동네를 보았다고 말하는 게 아직도 정말 억지 같으세요? 오히려 잃어버렸던 옛날을 찾아주었기에 저에겐 더 의미 있게 남을 가룻이었는데두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지요, 당신처럼요. 여행 어땠냐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묻고는 끝까지 듣진 않아요. 바빠서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전 옛날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처럼 그냥 '단순하게' 말한답니다. 한 마디면 다 알아들던 우리 동네에서 쓰던 말로.) ...

“네? 가룻 어땠다구요?”

“음...(.....)....좋았어요.”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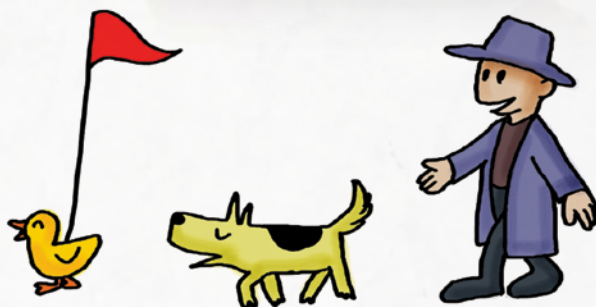
모습이 더 보기 좋아 따라 웃었지요. 나중에 집에 갈 때도 Naga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 손에 한 아름 먹거리를 싸들고 보내셨어요. 찾아온 손님 박대 안하고 대접하고 빈손으로 보내면 뭔가 아쉬워하는 우리 조상들처럼요. 우리가 마을 입구를 다 나왔는데도 그 분들의 복소리는 한 참 동안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만약 마을을 나서자마자 복소리가 끝나 버렸다면 저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있잖아요? 돌아 나오는데 등 뒤에서 바로 문 닫히고 ‘찰칵’ 문 닫는 소리 들리면 괜히 그런 기분 드는 거요. Naga 마을분들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해 대접하거나 연주한 게 아닌 것 같아 내심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참 모순된 마음이지요? 이들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요. 제가 거기 안 살아서 좋아 보이는 거라구요? 잠깐 갔다 와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구요? 단적인 예로 지금 냉장고 없으면 힘들지 않겠나구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가서 직접 보니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지금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사실 우린 처음부터 Naga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 보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Naga 마을 사람들은 ‘문명에서 등





영화가
Talk Talk

바보들의 행진(1975)



영화가

며칠 전, 두 아들과 함께 <바보들의 행진>을 다시 봤습니다. 장발단속으로 도망가고, 통금위반으로 경찰서에 잡혀가는 장면에 아이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게 재미있더군요. 최인호 원작소설을 1975년 하길중 감독이 영화화한 <바보들의 행진>은 한국 영화사를 말할 때 빼 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작품입니다. 하길중은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라, 국내 최초로 영화학(UCLA) 학위를 받고, 프란시스 코폴라와도 친한 사이였다는데, 38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로 '현실과 타협했다'고 한숨지었지만, 설사 유신체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본질상 영화란 3차원의 세계를 평면에 그리기 때문에 타협이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며, 작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협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검열에 30분이나 잘려나갔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바보들의 행진>은 뭔가 미진한 느낌을 줍니다. 하길중 감독은 누벨바그에 경도되어 있었다죠. 거칠게 툭툭 끊어지는 누벨바그의 영향은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애당초 그런 접근이 원작소설과 잘 어울리는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과장된 연기와 상투적으로 더빙된 성우들의 대사들과 합치면, 영화문법과 서사구조가 서로 겹

도는 것 같은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길중 감독이 현실과 타협했다고 할 때의 '현실'이란 억압적인 정치상황 못 지않게, 누벨바그 방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던 한국의 영화 제작현실을 가리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입영열차를 타는 장면으로 끝나는 수미쌍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70년대 대학생들의 코믹하고 가벼운 에피소드들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의 무서운 무게가 느껴집니다. 병태는 미팅에서 만난 영자와 잠간 사귀다가 차이고, 영철은 고래를 잡겠다고 동해안으로 가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병태와 영철은 영화 속에서 경찰이라는 공권력과, 또 교수들이라는 기성세대와 끊임없이 충돌하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70년대의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대놓고 말하지 못한 가장 높은 벽이 유신체제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을 터입니다. 영화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런 은유적 방



식 때문에 <고래사냥>이나 <왜 불러> 같은 삽입곡들은 더 빛을 발합니다.

<바보들의 행진>은 시대상황과 함께 읽어야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인공들은 미팅이나 다니다가 실연에 속상해하고, 돈 없이 생맥주 마시며 땡깡이나 부리다가, 불현듯 미친 듯 자살해 버리는 젊은이들로 보일 뿐이죠. 삶에 대한 열정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주인공들의 기행은, 과대항 술 마시기 대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선수들이 도열해서 막걸리를 열 잔씩 마시고 시험을 치르고, 다시 열 잔을 또 마시는 이 장면은 대단히 유머러스합니다. 시험에서 우승하는 병태의 모습은 <Cool Hand Luke>에서 ‘삶은 달걀 50개 먹기 내기’에서 이기는 폴 뉴먼을 연상케 합니다. 더 근사한 것은 작가 최인호와 코미디언 이기동이 시험의 심판으로 깜짝 출연을 하는 점이죠.

30년이 흐른 후 다시 본 <바보들의 행진>에는, 영화를 좀 더 잘 만들지 못한 게 이상할 만큼 빛나는 재료들이 들어 있더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인호 원작의 탄탄함과, 윤문섭이라는 배우, 그리고 송창식의 노래였습니다. 몇 해 전 소설 취재를 안내하면서 만나본 최인호 선생은 환갑을 앞둔 연세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정력과 따라잡을 수 없는 재치를 지닌 영원한 청년이시더군요. 연포해수욕장에서 기타치며 놀다가 캐스팅되었다는 윤문섭은 제 고교선배이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가 출연한 단 한 편의 영화가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그 뒤 홀연히 영화계를 떠난 그는 지금 이곳 인도네시아의 스마랑에서 사업가로 활약 중이죠. 그의 외모는 개성 있으면서도, 병태가 늘 끼고 다니던 정구체가 잘 어울리던 귀공자의 인상이었습니다. 우스워 보일 만큼 구부정한 자세로 그가 휘적휘적 걸던 팔자걸음은 70년대 청년문화의 또 다른 상징이었

죠. 그의 영화경력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병태의 우수어린 눈동자는 그가 연기해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발산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신인배우였지만, 커피를 열잔은 마신 것처럼 과장된 명량함을 보이던 이영옥의 상투적인 연기에 대비되어 그 어눌한 자연스러움이 더 돋보였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에서 느껴지는 완성도의 미진함은 한국 영화산업이 처했던 열악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열악함은 단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억압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산업에 대한 보호와 통제는 본질상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하기 위해 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보호하는 것이죠. 유치산업으로 보호되고 있던 한국의 영화산업은 오랫동안 그 야말로 유치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화의 제작현실을 가장 위협적으로 변화시켰던 사건들 중 하나는 ‘직배허용’이었습니다. 외국 메이저사의 직접배급을 허용하면 마치 이 땅의 영



화는 다 말라죽어버릴 것처럼 겁먹은 영화인들의 단식과 삭발 시위가 이어졌고, 어느 영화감독은 직배 상영관에 뺨을 풀기도 했었죠.

직배가 허용된 이후 막상 말라죽은 영화는, 말라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화들뿐입니다.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병행해서, 영화제작집단이 소비자의 욕구를 좀 더 섬세하게 반영해야만 하는 ‘민주화’도 소리 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계영화와의 힘겨운



경쟁을 경험한 뒤에야 우리 영화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에서, 로카르노에서, 급기야는 칸에서까지 깃발을 휘날리는 힘찬 도약을 이뤄낸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방화”라는 명칭 자체가 얼마나 어색한 외국어처럼 들립니까. 그 어색함의 한 자락이 아직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자는 목소리에 묻어 남아있긴 합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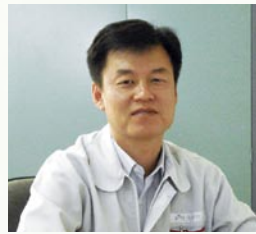
<바보들의 행진>이 우리 영화사에 미친 영향은, 그 속편과 아류작들의 행방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성공을 거두자, 하길종 감독과 최인호 작가 콤비는 속편인 <병태와 영자>(1979)를 만듭니다. 제대한 병태가 영자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The Graduation>의 라스트신처럼 약혼식장에서 신부를 데리고 줄행랑치는 병태의 모습으로 끝나는 영화죠. 하감독이 간암으로 별세하는 바람에 이 영화는 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병태와 영자 2>는 이강운 감독이 만든 속편인데, 영자(이영옥) 말고는 배역이 다 바뀝니다. 세 번째로 바뀐 병태 역할에는 <바보들의 행진>에서 병태 친구 영철로 나왔던 하재영이 맡아서 좀 서먹한 느낌이었죠. 이 영화는 고단한 신혼살림으로 전전하는 병태와 영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에 대한 향수는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1984)과 <고래사냥 2>(1985)에서도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 제목 자체가 <바보들의 행진>에서 자살한 영철이 버릇처럼 뇌까리던 대사이자 그 영화의 타이틀 송이었던 데다가, 김수철과 손창민이 연기한 주인공의 극중 이름도 ‘병태’였던 거죠. 배창호 감독의 화면은 70년대 영화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안정감이 있고, 유머의 세련미도 객석에서 보기에 한결 편안한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바보들의 행진>은 그 후의 청춘영화들이 담지 못한 깊이와, 이르지 못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기법 면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을 담고 있고, 우회적으로나마 시대적 고민을 그려내기 위해 진지하게 애쓴 흔적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이규형 감독의 <청춘스케치>에 이르면, 한국영화가 걷고 있던 길이 과연 발전인지 퇴행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한국의 대학생들이 점점 바보가 되어간 것이 아니라면, 지금쯤은 좀 나은 청춘영화 한 편쯤 나와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Paper Chase> 같은.

Outsourcing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규직 활용의 부담(해고보상금 및 근속보상금 발생, 처우, 인력운영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정규직 보다는 용역업체 활용으로 인력운영의 방향을 선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용역인력 활용의 문제 사례를 살펴보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62-21-898-9696
핸드폰: +62-815-1902-4000
이메일: agung@lpdisplays.com

* 사례 1

Tangerang 소재 D 공장 사례

Tangerang에 소재한 포장재 생산 업체인 D사 [총 800명(정규직 60명, 계약직 70명, 외주인원 670명)]에서는, 2007년 10월 9일 200여명의 사원들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여 생산이 2일간 중단 되는 사태가 발생함.

상황 파악 결과 사내 외주용역인원이 급여에 불만을 품고 일부 계약직 사원과 결탁하여 무단결근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배경으로는 회사에서 기존 2개의 용역회사를 쓰고 있었는데 1개의 용역회사를 추가하며 별도의 관리비(보통 기본급의 5~10% 지급)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당 용역회사는 본인들의 이익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용역사원들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음. 아울러 회사에서는 기존 2개 용역회사의 일부 인원을 신규 용역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신규 용역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사원들은 급여가 일정 부분 감소 되었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동료 용역사원들 및 계약직 사원들과 동조하여 무단 결근함. 용역 사원들은 급여 감소부분 원상복귀 조치를 계약직 사원들은 정식사원으로 신분 변경을 각각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용역 사원들의 급여 부분의 요구는 수용하고 계약직사원의 요구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고 설득하여 사태를 마무리함.

* 사례 2

Bekasi 소재 K사 사례

Bekasi 소재 사내 외주 용역 업체(수급회사)인 K사(사원 500명)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사원들에게 지급하다 모기업(도급회사) 진단에 적발되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음. 진단 결과 회사에서 용역 사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 중 일부를 해당 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용역업체가 착취한 것으로 확인됨. 중대한 노무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사전 진단으로 문제 없이 해결된 사건임. 이후에도 모기업(도급회사)에서는 해당 용역업체(수급회사)의 사원 처우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사례 3

Cikarang 소재 L사 사례

전자 부품 업체인 Cikarang 소재 L사에서는 2007년 12월 약 100여명의 사원이 회사 정문에서 임금 지급 시정을 요구하며 데모를 실시함. 확인결과 사내 강성 노조 세력이 임금에 불만을 품고 있던 용역업체 인원들을 선동하여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됨. 임금지급 문제 사유로써는 회사에서 사전 설명 없이 용역인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적용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결근이 발생한 일자에 대해 급여를 공제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일부 강성노조 추진 세력이 사태에 편승하여 본인들의 희망사항(노조설립, 복리후생 개선, 계약직 사원 처우 개선 등)을 회사측에 요구함. 사태 발생 즉시 회사는 용역회사와 협의 해당 용역 사원들에게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마무리 함.

1. 문제점

1) 노동법 미준수

① 최저임금

노동법에서는 해마다 각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고(매년 11월경 발표, 차기 년도 1월부터 적용) 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최저 임금 기준으로써 적용이 되며 모든 회사는 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상기 사례에서 보면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

해 문제가 발생 하였음.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나 용역회사의 이익금 공제,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따른 결근 일자 임금 공제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가 지급됨).

② 무노동 무임금

노동법에 무노동 무임금 규정이 있으나 이는 무단 결근 등 그 귀책사유가 사원에게 있을 경우에 한하며 병가, 경조휴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무 등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2) 용역회사의 관리력 부재

정규인원 활용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용역인원 활용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관리력 부재, 비용 절감을 위한 모회사(도급회사)의 각박한 수준의 용역비 지급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3) 사전 진단의 부족

소요가 발생할 정도라면 사전에 특정 징후들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 용역회사(수급회사)에 대한 모회사(도급회사)의 진단을 통해 감지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모회사의 인사/노무 부서에서는 정규인원에 대한 노무관리는 물론 용역회사의 노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감시하여야 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

2. 시사점 및 개선방향

1) 최저임금 기준 준수

어떤 경우든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는 사원들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정확히 지급을 하여야 함. 또한 모기업(도급 회사)에서는 해당 용역회사(수급회사)의 관리비 또는 이익 부분은 별도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병가, 경조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허가 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 휴무를 실시하였더라고 사원들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함. 단, 회피 불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유 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확인(노동부 질의 등) 및 사원들에 대해 정확한 공지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혼돈 및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우수 용역 업체 관리 및 육성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노무 관리력, 對관공서와의 관계 능력 등 전반적 업무 능력에 대해 검증한 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적절한 이익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원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수의 업체 선정보다는 인원규모에 맞는 소수의 전문 용역업체 육성 및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 아울러 용

역업체와 회사 사원(주로 인사 또는 총무부서)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부분(채용, 커미션 등)을 검증함으로써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기적 진단 실시

용역업체에 대한 정기적 진단(채용, 급여지급, 인원관리 등)을 통해 문제점 발견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인력운영을 지향하고 아울러 유능한 용역 업체 육성의 기틀이 되도록 한다.

* 임금 관련 규정 요약

1. 급여 요약:

1. 급여 구성 항목(장관령 7-90)

1) 기본급:

업무의 성격 및 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보상금 이며 상호 합의에 의거 결정됨.

2) 고정수당:

근태 또는 출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

예) 직책수당, 직위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물가수당, 지역수당, 식대, 교통수당 등

3) 비교정수당:

근태 또는 출결 사항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됨
예) 교통수당, 만근수당, 식대 등

2. 비급여 소득

1) 복지시설:

차량, 식사제공, 예배장, 탁아소, 협동조합, 매점 등

2) 보너스:

급여로 보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 또는 근로자의 업무성과(목표 초과하는 생산성, 품질달성 등) 달성시 지급되며 금액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됨

3) 기타: 종교명절 수당, 팁

※ 종교명절 수당 지급 기준:

－ 근속 3개월 미만: 주 지급

－ 근속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12*급여

－ 근속 1년 이상: 1개월 급여

3. 기본급 Portion에 관한 규정:

급여 구조가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구성된 경우 기본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전체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4. 임금지불 의무 소멸: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자 임금 지불 및 기타 모든 지불 요구는 권리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시 소멸됨.



II. 임금관련 규정:

1. 최저임금 관련 규정:

각 지역별 지방정부 노사정위원회에서 매년 협의를 통해 차기년도 적용 해당 지역 최저 임금을 발표함. 최저임금 책정은 해당지역 의식주 및 생필품 관련 물가수준에 근거함.

2. 무노동 무임금 관련 규정(03년 노동법 제93조):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 무노동 무임금 예외 규정:

-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여성근로자가 생리통으로 인해 생리 첫째 날과 둘째 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 본인 결혼, 자녀 결혼식, 자녀 할례식, 자녀 세례식, 배우자 출산 또는 유산, 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부모/처부모/동거 가족 구성원 사망으로 인한 결근
- 근로자가 국가 의무 수행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종교에서 명하는 종교활동 수행을 위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는 계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본인의 실수나 회피 가능한 장애로 인해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휴가권을 실시할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하에 조합업무를 수행할 경우
- 근로자가 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 임무를 수행할 경우

3. 급여 보장(법령 8호~81)

1) 유급휴가

- 경조휴가: 노동법(03년 제93조)
 - 근로자 결혼 3일
 - 자녀 결혼 2일
 - 자녀 할례/세례 2일

- 배우자 출산/유산 2일
- 배우자, 부모/처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시 2일
- 동거 가족구성원 사망 1일

b. 의병휴직 급여:

-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 근로해지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c. 국가 의무 수행시(정부로 부터 보상 無): 1년간 정부지급 보상이 급여 보다 적을 시는 차액 지급함.

d. 종교의무 수행시: 최대 3개월간

2) 급여 지급 원칙

- 사원에게 직접 지급, 미성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보호자의 이견 없을 시 유효
- 제3자를 통한 지급 시는 위임장을 통해서만 가능(위임장은 1회한 유효)
- 급여중 일부(25% 이내)는 현물로 지급 가능(단, 약품, 술은 불가)
- 급여지급 주기: 최소 1주일, 최대 1개월 간격
- 급여지급 지연시: 4일째부터 5% 추가 지급, 8일 이후부터는 1%추가 지급, 1개월 간 추가지급은 50%를 넘지 못함. 1개월 이후에도 지급 불가시 이자 추가 지급.(회사 대출 은행 금리 기준)

3) 급여 공제

-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벌금 부과는 취업규칙, 단협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기되어야 만 가능.
 - 벌금 부과시 해당사원에 대해서 손해보상 요청은 불가함.
 - 급여공제는 사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만 가능(단,정부 의무 사항은 예외:세금, Jamsostek 등)
 - 근로자의 실수, 태만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시 근로계약서,사규,단협에 근거 급여공제 가능(단, 50%를 초과하지 못함)
 - 근로자 퇴직시는 부채와 전제 급여 상해 가능
 - 제3자에 의한 급여 차입시 최대 20% 한도 내 급여공제 가능
- 4) 회사 부도시 근로자 급여는 최우선 지급 대상임.
- 5)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를 갖음.

4. 연장 근로(장관령 72~84)

1) 연장 급여 계산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물가수당, 물품수당

2) 상가 연장급여 계산 항목의 합은 통상 급여의 75%이상이어야 함.

3) 연장 근로 시간 규정

요일	평일		휴일/주휴일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시간	연장 첫째	연장 둘째 이후	1~7	8째	9째 이후	1~5	6째	7째 이후
연장급여	1.5 X 시급	2 X 시급	2 X 시급	3 X 시급	4 X 시급	2 X 시급	3 X 시급	4 X 시급

** 주 6일 근무제일 경우

‘골목대장’ 푸틴의 에너지 황포 No More Mr. Nice Guy

자료제공 : 조규철 편집인

오일달러로 옛 소련 위상 회복한 듯
약소국 괴롭히자 이웃 자원 강국과 유럽이 반격에 나섰다

“우리나라를 산산조각내려는 작자에게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의 말투로 보서는 이제 막 전쟁이 터진 듯했다. 관세와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러시아가 벨로루시(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럽의 고객 국가들)로 향하는 석유 수출을 중단한 직후 루카셴코가 한 말이었다. 그는 또 “벙커 속으로 들어갈지언정 결코 항복하진 않겠다” 고도 했다. 그러나 이들 뒤 루카셴코는 백기를 흔들었다. 그에게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사이의 팽팽한 전화통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푸틴이 양보하지 않았음은 분명했다.

크렘린 측 협박의 핵심은 러시아로 수출되는 벨로루시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벨로루시는 대외무역의 절반 이상이 한때는 최고의 지정학적 우방이었던 러시아와의 교역으로 이뤄진다. 그런 만큼 관세율이 인상되면 벨로루시의 경제는 파탄될 판국이다.

항복 조건 역시 잔인했다. 러시아가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2배로 인상하고, 벨로루시의 가스 운송관 네트워크를 러시아의 가스프롬사에 매각하며, 유럽에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유가 벨로루시의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과할 때 내던 통과관세를 없앤다는 조건이었다.

자금력이 부족하며 유럽의 여타 지역으로부터 정치·경제

적으로 고립된 벨로루시에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은 경제의 생명선이었다. 이미 경제적 건강이 위태로운 벨로루시에 에너지 공급의 중단은 큰 타격이다. 러시아의 여타 이웃 국가들은 이번 사태의 교훈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이 러시아가 가장 가까운 우방들을 다루는 방식이라면, 적국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는가?

벨로루시 사태는 이제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 여파는 오래 갈 듯하다. 유럽은 푸틴의 행동에 더할 나위 없이 경악했다. 푸틴이 비슷한 에너지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일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그 같은 결정은 유럽 고객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때 손상된 외교관계를 회복하느라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러시아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값비싼 홍보 전문회사들을 고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호화판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느라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신뢰할 만한 에너지 동반자”(푸틴의 표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그러나 정확히 1년 뒤 러시아는 골목대장 행태를 재연했다. 기록에 남는 발언을 할 권한이 없어 익명을 요구한 모스크바의 한 서방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 번은 용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번은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유럽은 러시아와 푸틴이 말하

는 내용을 믿지 않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다.

푸틴의 에너지 외교는 발트해부터 카스피해까지 옛 소련 제국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과거의 우방들을 적으로 만들어 왔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행토록 선도하고 움직이며 설득하는 능력인 이른바 ‘부드러운 권력’ (soft power)이 그렇게 파국적으로 실종되면서 앞으로 수년간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해 온 위상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게다가 모스크바 측은 에너지 운송관을 도구로 유럽을 확고히 장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유럽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요량을 가능한 한 빨리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려 전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카운터 펀치를 날릴 많은 방안이 모색됐다. 그중 일부는 머지않아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주 공개된 유럽의 획기적인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대체 공급자를 확보함으로써 그런 반격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또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0%를 (태양열·

풍력 등)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며 에너지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폴란드·리투아니아·프랑스·스페인 등지에서는 이웃 나라가 석유·가스 부족 사태를 극복하도록 도우려고 전력 시설망이 통합될 예정이다.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원자력 억제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암시하기도 했다. 세계 각지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려는 대규모 노력도 시작됐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송유관 정치’의 속박에서는 벗어난다. 한편 브뤼셀(EU 본부) 측은 러시아를 우회해 발칸반도를 가로지르는 가스 공급관(일명 나부코 가스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나부코는 중부 유럽을 카스피해의 가스 생산국들과 연결시키게 된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같은 에너지 공급국과 협상할 때는 EU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단결해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푸틴의 외교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7년 전 러시아에 제국의 위세를 회복시켜 준다는 웅대한 포부를 안고 집권했다. 옛 소련 공화국들을 통치하는 권한을 다시 확인하고, 서유럽 등지의 정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다고 다짐했다. 운명은 그에게 미소를 보내는 듯했다. 석유가격 급등으로 크렘린의 금고는 수백억 달러의 횡재로 가득 찼다. 게다가 에너지에 굶주린 세계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석유와 가스 공급의 통제권은 옛 소련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권력을 모스크바에 안겨줬다. 크렘린과 연계된 정세분석가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는 “그동안 러시아는 지정학적 순풍을 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불어줄까? 러시아를 겨냥한 이웃 나라들의 혐오감과 옛 동맹국들의 불신감은 거의 냉전 수준까지 고조됐다. 푸틴은 메르켈의 전임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친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슈뢰더가 퇴임한 뒤에는 그를 러시아 에너지 컨소시엄의 고문으로 고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푸틴이 메르켈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은 2주 전까지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메르켈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지난 주 그는 최근의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에 느꼈던)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 점차 고조되는 불신감과 벨로루시·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적 대립 외에도 러시아는 농산물 교역을 둘러싸고 폴란드와도 다툼을 벌였다. 러시아는 또 리투아니아의 마제이큐 정유소에 공급하던 석유를 표면상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중단했다. 그리

고 옛 소련공화국인 그루지아와도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인다. 지난주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점차 늘어나는 푸틴의 적대 진영에 가담했다.

바쿠(아제르바이잔의 수도) 측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독점 대기업 가스프롬 측으로부터 가스 가격인상 결정을 통보받은 뒤 대체 공급국인 이란 쪽으로 기울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러시아 항구들로 보내는 자국산 석유의 선적을 중단하도록 국영 석유회사 소카르에 지시하는 보복조치로 응수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그것도 부족했던지 독립국가연합(CIS)을 “쓸모없는 조직”이라고 혹평했다. CIS는 러시아가 옛 소련권에서 ‘부드러운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였다.

이처럼 크렘린의 협박외교는 러시아의 옛 제국을 소생시키기는커녕 외교적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연구사례가 됐다. 푸틴이 의도적으로 그런 외교를 전개했다면, 그것은 그의 보다 큰 지전략적(geostrategic) 목표에 더할 나위 없이 큰 피해를 준 셈이다. 문제는 그 이유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아마도 가장 단순한 이유는 푸틴이 새롭게 깨달은 석유의 위력에 너무 자만해진 나머지 더 이상 ‘신사(Mr. Nice Guy)’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푸틴은 루카셴코처럼 고집 센 친구들에게 양갈음을 하면서 누가 뒷사람인지 보여주는 일이 러시아의 평판에 미칠 결과를 계산하는 쪽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세분석가 카라가노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에 우쭐해지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때론 거만하게 행동했다. 사람들은 덩치 크고 힘센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푸틴이 루카셴코를 굴복시킨 방식의 야만성은 앞으로 크렘린의 악몽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육지로 둘러싸인 소국인 벨로루시의 장래는 러시아의 자비심에 달려 있다. 루카셴코는 친구가 없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 정도가 친구라 할까. 다른 말로 하자면 루카셴코는 다루기 쉬운 희생양이다. 그러나 천연가스가 풍부한 옛 소련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처럼 좀 더 강력한 이웃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게?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가 매년 해외로 수출하는 가스 1500억㎥의 거의 절반을 공급한다. 가스프롬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그 가스를 1000㎥당 100달러에 사들여 유럽에 230달러를 받고 되팔아 큰 차익을 남겨 왔다. 지난 달 과대망상적 통치자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가 사망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적 미래는 주목의 대상이다. 에너지에 굶주린 이웃 나라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자원에 눈독을 들인다. 에너지 운송관 한 개는 이미 이란으로 연결됐고, 중국은 2005년 석유·가스 협력조약에 서명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서방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오래 전부터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 가스관은 최근 완공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와 터키를 잇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를 우회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서방세계 시장을 직접 연결한다.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 수출의 독점에 가까운 권리와 그에 수반되는 이익을 지키느라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90년대 가스프롬에서 일했던 에너지 분석가 제롬 길렛은 이렇게 말했다. “가스프롬은 자사의 이익을 지지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다른 수출 길을 모색하는 후보를 깎아내릴 듯하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이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아·우크라이나의 뒤를 따른다면, 그래서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로 선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아시아산의 값싼 가스가 없을 경우 가스프롬의 에너지 지배력(그리고 러시아의 오만한 행보)은 신속히 사라질지 모른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요인도 있다. 러시아 자체의 가스전은 이미 부존량의 정점을 지났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은 투자 부족으로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또 유럽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대체 공급국들과 연결될 전망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행패에 넌더리를 내는 서방세계 소비자들은 비용과 상관없이 그 대체 공급국들과 제휴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치세 기간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골리앗(러시아)의 모습이 그려진다. 물론 응보의 날은 먼 미래에 있는지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유럽(그리고 러시아의 옛 우방들)은 크렘린의 고압적 행태를 감내하면서 가스프롬 측이 책정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푸틴은 강대국이 되려면 약자 괴롭히기 이상의 자세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한인회

교민들에게 한인회의 활동을 알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신년특집으로 기획했던 <한인회 소개>에 대해 많은 교민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정리하여 다시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2월호에 다시 한번 게재를 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1972년 7월 대한민국 거류민회가 결성되어 한인 친목단체로서 태동한 이래 이제는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민간 기관이 되었습니다. 회원이 3만 5천여명에 이르는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친목과 화합,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한인회는 교민들과 <아름다운 공동체-재인도네시아 한인회>라는 새로운 모토로 교민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합니다.

한인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위원회의 조직 편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사무국과 협력단,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회 부회장이 각 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젊은 층 교민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년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교민들이 요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Korean Association Bldg. Jl.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전화 : +62-21-521-2515 (hunting)
팩스 : +62-21-521-2486(사무국)
+62-21-526-8444(한인뉴스)
E-mail : yasko@indosat.net.id
Website : www.innekorean.or.id

1. 한인회의 이념

서로 돕는 한인사회, 서로 믿는 한인사회, 발전하는 한인사회

2. 목 적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들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도모하고, 상부 상조하며, 한-인니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분야 등 가능한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과 나아가 조국발전에 기여한다.

3. 회 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서, 인니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회 등록을 필하고, 회칙 준수, 한인회 목적에 동의, 본회의 결의 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는 한인. 회원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4. 의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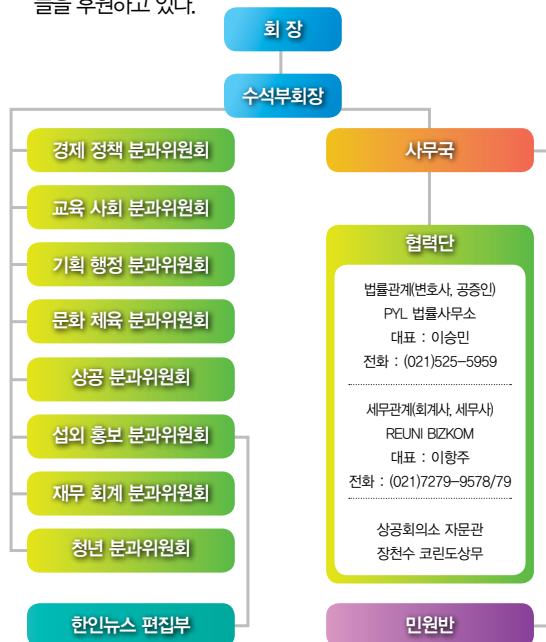
- 회장단회의
회장과 부회장들로 구성되고 한인회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이사 및 지부장의 위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써 구성되며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한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한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장단, 임원, 운영위원, 지부장등으로 구성되며 회장선출, 사업계획, 사업경과, 예산결산 승인, 기금 및 찬조금의 모금,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예산 집행

매 회계 년도별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회계 년도말에 감사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6. 활 동

8개의 상임 분과 위원회가 있으며, 법률과 세무 관계는 대외 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늘어나는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 사회의 다양한 특별활동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인회 사무국

교민들을 위해 한인회(한인회 사무국)에서는 교민들의 정착을 돕고 업무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들을 듣고 해결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업무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1. 민원 업무

▪대 교민 민원 업무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업체의 투자 문의
- 영사업무 관련서류 번역 - 혼인증명, 호적등본 등
- 경찰서 등 관공서 통역 및 번역 업무
- 한국 언론기관 취재 협조, 관련자료 제공
- 구인, 구직, 색인 문의 상담
-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현지 안내
- 재난 구호 성금 모금 활동 및 불우이웃 돕기 사업
- 대사관 동포안내문 배포 및 홍보
- 재외동포재단 해외사업 참여 및 홍보활동

▪특별 민원반 운영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관공서 등 현장에서의 교민들의 많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특별 민원반 운영.

담당 : 김재민(한인회 사무국장) 휴대폰 0818-870-242

김성복, 휴대폰 0815-1177-1899

2.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교민이나 진출기업 임직원(인도네시아인 포함)은 누구든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이승민 변호사 (휴대폰 0816-1911245)

상담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법정공휴일 제외)

상담 장소 : 한인회관 1층 상담실

상담 범위 : 기업법무, 소송, 채권회수, 중재, 부동산, 노사문제, 현지진출, 세법, 출입국, 계약, 영주권, 국적, 상속, 혼인, 재단설립 등 법률에 관련된 사항

사용 언어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혹은 영어

상담 방법 : 대면 혹은 전화 상담

3. 한인증 발급을 통한 교민 혜택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혜택

한인회는 국내 8개 유수 의료기관과 의료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인회에서 회원증을 발급받은 교민들에게 본국에서 국민 보험 수거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의료혜택 병원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 중앙대학교 의료원
- 한국 원자력연구소
-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 경희의료원
- 서울 아산병원
-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한인회원증 미소지자도 진료가능)

*각 의료기관별 의료혜택 범위는 표 <의료혜택 병원> 참조

4. 한인회 홈 페이지 운영

- 한인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라는 컨셉으로 교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지방한인회

메 단	회장 김 우 영 총무 김 석 원	전화) 061-453-8669, 팩스) 061-414-3891, 휴대폰) 0811-607-130 휴대폰) 0812-609-6737
바 밍	회장 박 동 희 총무 김 용 태	전화) 0778-392-014, 팩스) 0778-392-013, 휴대폰) 0811-693-720 휴대폰) 0811-697-482
반 등	회장 엄 정 호 총무 강 석 희	전화) 022-2041-773, 휴대폰) 0812-201-8309 휴대폰) 0813-2024-7878
발 리	회장 김 동 수 총무 김 철	전화) 0361-728-894, 팩스) 0361-728-892, 휴대폰) 0811-394-551 휴대폰) 0361-741-9958, 김 호 찬 휴대폰) 0813-3822-6874
보 고 르	회장 한 현 봉 총무 이 철 훈	전화) 7782-2959, 팩스) 7783-1578, 휴대폰) 0818-845-392 휴대폰) 0811-112-179
수 까 부 미	회장 김 흥 기 총무 오 승 현	전화) 0266-, 팩스) 0266-, 휴대폰) 0811-980-337 휴대폰) 0815-962-3316
수 라 바 야	회장 임 택 선 총무 김 도 현	전화) 031-568-8690/1, 팩스) 031-566-9927, 휴대폰) 0811-320-842 휴대폰) 0812-358-2233
스 마 랑	회장 박 철 구 총무 박 용 구	전화) 0298-522-296, 팩스) 0298-522-342, 휴대폰) 0812-286-0222 휴대폰) 0811-279-149
족 자	회장 조 현 보 총무 박 광 호	전화) 0274-376-741, 팩스) 0274-371-116, 휴대폰) 0811-286-561 휴대폰) 0816-422-3329

-한인회 소개 및 소식, 상공회의소, 한인뉴스, 인도네시아뉴스, 생활정보, 참여마당, 민원상담, 기업디렉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인회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인 [한인뉴스]를 매월 받아보실 수 없는 교민들을 위해 PDF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5. 한인회 도서관 운영

한인증을 소지한 교민들에 한하여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도서관 소장 서적 무료 대여.
문의 : 한인회 사무국 (521-2515)

6. 정기총회

- 운영 위원 정기 총회 회의 및 친선 운동
- 이사회 정기 총회 회의 및 친선 운동

분과위원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육, 문화, 예술, 경제, 홍보, 친목 등 교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한인회 현재 총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회 분과 위원회〉

▪ 각종 강좌 개최

- 인도네시아의 한인들을 위한 각종 강좌를 기획, 지원
- 문화 탐방 교실, 인도네시아어 강좌 등
-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 인도네시아 고아원, 장애자 재활원, 양로원 등 사회 복지시설 방문

〈기획 행정 분과 위원회〉

- 한인 사회 Data 정비
- Web Site를 활용하여 한인 사회의 종합적인 Data를 정비
- 한인회 역사 자료의 Data Base화

〈문화 체육 분과 위원회〉

▪ 8.15 기념식 및 체육 대회

- 8.15 기념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방의 의미를 되새김.
- 교민골프 대회, 일반인(학생 포함) 친선 체육 대회 통한 교민친선 도모

▪ 송년의 밤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한인 사회를 되돌아 보며 교민들 간의 친선 도모 (격년 개최)

▪ 문체부 사무실 운영

각 문화 체육 관련 협의회를 위한 문체부 사무실 운영

▪ 각 특별 활동 단체 지원

문화 체육에 관련된 교민들의 특별 활동 단체 지원

〈상공분과 위원회〉

-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 활동
- 국제 상공 회의소(IBC)의 회원으로 활동
- IBC 회원국인 외국인 상공회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상공인 단체(KADIN, APPINDO, KPEN)와 활발한 교류 및 협력
- 인도네시아 경영인 총연합 (APINDO) 특별 회원으로 활동
- 인도네시아 경총의 특별회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양국 상공인의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일간지 및 주요 정보 요약 및 번역 자료 제공
- 인도네시아 일간지를 요약 Web Site를 통하여 회원사에 발송
-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관련자료 및 법안 등을 이메일이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
- 인도네시아의 관련 부서와 필요할 경우 간담회를 개최
- 한인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니 관련 부서

분과 위원회

분과위 명	위원장	전화
경제정책분과	조종수 부회장	574-1030
교육사회분과	박헌식 부회장	897-2141
기획행정분과	배도운 부회장	441-0363
문화체육분과	신기엽 부회장	252-5123
상공분과	송창근 부회장	5940-0920
섭외홍보분과	조규철 부회장	525-2258
재무회계분과	이민재 부회장	515-1919
청년분과	이진수 부회장	823-1440

와의 유대관계 증진

-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를 통해 상공회의소 소식과 경제관련 유용정보 제공

▪ 총회

상공 회의소의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한 특별 총회 계획
상공회의소 활동 및 사업 계획, 회칙 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보고

담당 : 남지화 간사

연락처 : 527-7539

이메일 : kocham@cbn.net.id

〈섭외 홍보 분과 위원회〉

▪ 한인 뉴스 발간

- 매 월 1회 한인 뉴스 발행을 통해 한인회와 동 관련 단체, 대사관 동정 홍보
- 한인사회의 다양한 동정을 전하고 인니 법률, 경제, 문화 등 유익한 정보 공유
- 지방 한인회와 해외 한인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한인사회의 소식 전달

담당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연락처 : 0818-916-566

이메일 : haninnews@naver.com

〈재무 회계 분과 위원회〉

▪ 회계 처리 및 각종 세무 업무

각 분과위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결산서 작성, 세무 업무 처리

〈청년 분과 위원회〉

▪ 해외 각 지역의 청년회 네트워크 구성

▪ 인도네시아 교류증진 및 협력사업 강화

- 문화, 체육, 교육, 홍보, 봉사활동 등 협력강화
- 경영세미나 및 토론포럼 정기 활성화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문화탐방 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2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도네시아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한인회 지정 가맹점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뉴서울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TER, BCA	5%	



상공회의소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상공인의 개선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재인니 한인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중요인사 예방

임원단은 유관기관의 중요인사를 예방하고, 인니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상공인 간담회

유관기관의 중요인사를 초청하여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 등을 토론하며 이를 유관기관에 공동건의 한다.

세무 설명회

유관기관의 중요인사 및 현지에 경험이 많은 한국인 인사를 초청

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무관리 간담회

업종별,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하여 사전 논의하고 인니 정부에 건의 수렴토록 노력한다.

각 업종의 공동 관심사 및 필요한 근로계약을 논의한다.

노조관리의 효율성과 최대한의 노동쟁의 파업을 줄이기 위해 각 업종간의 미담 및 방안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경영에 참작 할 수 있게 한다.

경제 윤리 및 상도덕 확립 노력

기타 상공업의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필요 시 연1회 상공인의 밤을 개최



주요활동

▪국제상공회의소(IBC) 월례 조찬회의 참석재인니 외국상의간 연 합체로 정부, 인니상의 및 경총과 긴밀히 협조

회원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유로 챔버(18개 상의)

▪기업체 상담 및 현지진출 관련 정보 제공

외국계 기업의 한인기업에 관한 문의 및 협력요청
한국에서 인니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담 및 현지정
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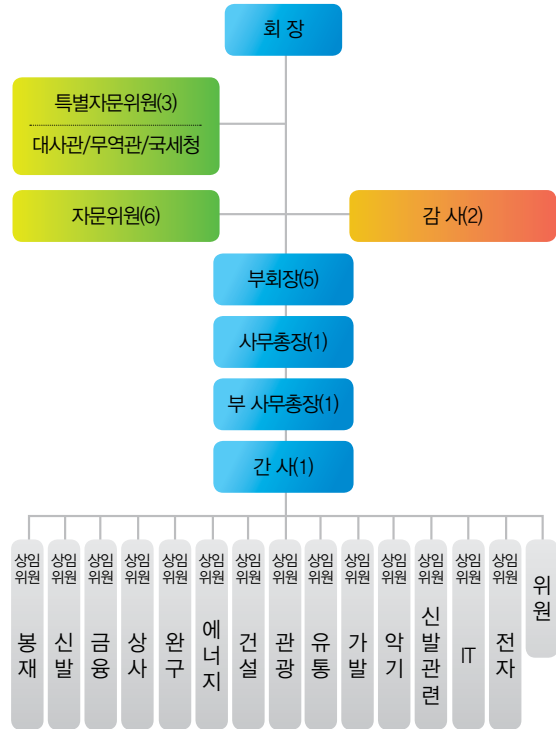
▪2007 신규 세법 번역 및 세무관련 상담 및 자문 제공

– 장천수 국세청 자문위원
신규세법은 홈페이지에 게재 및 회원사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 송부

▪2007년 12월 부터 <주간 상공회의소 소식> 이메일로 서비스 실시

-문의 : 한인상공회의소 남지화 간사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조직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Indonesia
Korean Association BLD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Indonesia.

전화 +62-21-527-7539

팩스 +62-21-5296-0586

담당 : 남지화 간사

이메일 : kocham@cbn.net.id

업종별 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는 14개 분야의 업종별 협의회를 상임위원
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가 약 1200개의 전체 재인니 한인 기업인
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경제인 단체로서 업종을 막론하고 모
든 기업인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각 분야의 여러가지 정보
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사를 기획하며, 한인기업인을 대표
하여 한국과 인니의 국내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업
종별 협의회는 각기 특색을 달리하는 업종별로 조직되어 해
당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업종
별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협의회원 간의 교류 뿐 아니
라 현지 동종업계와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회원사
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의
모든 행사는 업종별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협의회명	회 장	회 사 명	전 화
유통	김 우재	무궁화	7222214
관광	승 주호	하나관광	5202450
악기	이 영호	삼익	8230538
금융	조 종수	외환은행	5741030
봉제	김 경곤	PT. SUKWANG	7902721
IT	황 환규	PT. Kornet Indonesia	8306706/7
전자	박 수철	PT.Kepsonic	8972191
모발제품	이 현상	PT.Royal Korindah	6610349
에너지	권 흠삼	한국석유 공사	57932517
상사	조 찬구	삼성물산	3983-7001
완구	이 종후	성원	(0267)401193
신발	서 행원	PT. Garuda Indawa	596-0445
건설	정 태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527-8182

한인회원 등록 안내

1.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2. 등록절차

구비서류
여권, KITAS (KITAP) 사본 각 1부.
사진 (2x3) 2장.
등록신청서 작성 (한인회 비치)



한인회원증 발급

3. 회비납부

- 개인 USD 12 / 년, 가족 USD 20 / 년

4. 회원혜택

- 의료 협정 체결 병원(국내)에서 진료 시 의료혜택(표-1 참조)
- 한인회 지정 가맹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추후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공지)
- 한인회 도서관 이용, 무료 대출
- 무료 법률상담실 이용

의료혜택 병원

번호	의료기관	전화/팩스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5114 팩스: 02)313-9028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 의료원 (용산, 필동)	전화: 02)748-9900 팩스: 02)798-474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20% 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 할인 (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전화: 02)970-1622 팩스: 02)970-129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전화: 02)2639-5021 팩스: 02)2676-098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전화: 02)2650-2611 팩스: 02)2650-5051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618~9 팩스: 958-960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여자: 유방, 자궁암검사 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전화: 02)3010-3114 팩스: 02)3010-3113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전화: 02)2290-9550~2 팩스: 02)2290-9567 ich@hmc.hanyang.ac.kr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국민건강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일반수가 : 1) 행위료 : 국민건강수가의 2배 적용
2) 의약품, 진료재료 등 : 국민건강수가의 1.5배 적용
3) 일반수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한인회 등록 신청서 (남,녀)

일자 :

사진(2X3)	성 명	(한글)				
		(영문)				
	생 년 월 일					
한국	본 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인도네시아	1	Tel.				
	2	Tel.				
회사명 및 주소	1	Tel.				
	2	Tel.				
입국일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비 자	(상용), (취업), (기타)	KIM' S	NO. :			
			유효기간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여권번호	유효기간
20 . . .					(서명)	

(증명사진 2매첨부)



자카르타, 하룻밤 비에 도시기능 마비

[스피드뉴스] 하룻밤 내린 비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육상과 항공 교통이 마비됐다고 현지 일간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행정당국은 1일 홍수로 이재민 1천5백명이 발생하고 어린이 3명이 익사했으며 피해액이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수도 자카르타 이외에도 자바, 수마트라 및 술라웨시 섬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12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카르타에 31일 밤부터 1일 오전까지 70mm를 넘는 폭우가 내려 시내 도로와 철도가 침수되고 차량과 열차 운행이 중단돼 출퇴근길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자카르타 남단 지역에서 위성도시 땅그랑으로 버스를 이용해 통근하는 한 직장인은 이날 오후 5시 사무실을 출발, 7시간만 인 자정이 돼서야 귀가했다고 말했다.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대통령도 일반시민과 다르지 않았다.

1일 새벽 자카르타 근교 시장으로 민생시찰을 나갔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홍수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몇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궁 주변도로가 1m 가량 물에 잠겨 대통령궁을 2km 정도 남기고는 전용 승용차에서 경호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갈아타야 했다.

폭우에 ‘하늘 길’도 폭우에 마비됐는데 수카르노하타국제 공항에 1일 낮까지 계속된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가시거리가 300m 미만으로 떨어지고 활주로 일부가 침수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5시간 가량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공항에 착륙하려던 58편의 여객기가 자카르타 동부 할림공항과 싱가포르로 회항했고 177편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8천여명의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하르토 장례 국장 거행..애도기간 1주일.

[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27일 사망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했다.

관영 안타라통신을 비롯 현지언론들은 이날 하타 라자사 국무장관의 발표를 인용, 그같은 국장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부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을 장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관공서와 해외공관 및 전 국민에게 조기 계양을 권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장례일정에 따르면 발인은 28일 오전 6시로

다나 자택을 출발한 수하르토의 시신이 오전 8시30분에 허큐리스 수송기 편으로 자카르타 할림 공항을 이륙, 장지인 솔로로 운구된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죽기 전 “오전 11시 이전에 매장을 마쳐달라”고 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운구와 가족 및 조문객의 이동을 위해 27일 오후 총 10대의 항공기를 할림 공항에 대기시켰다. 동시에 민영항공사 빨리타 에어 서비스가 여객기 3대를 준비했고, 국영철도회사도 솔로행 특별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고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중부자바의 솔로시(市)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카랑안야르 지역에 위치한 가족선산 ‘아스타나 기리방운’에 안치된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날 그가 입원했던 남부자카르타 빠르따미나 병원 주변과 중부자카르타 자택 주변에 비가 내리자, 조문객들이 “하늘이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는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

이날 장지인 수하르토 가족선산 ‘아스타나 기리방운’에도 갑작스럽게 비바람과 천둥이 쳤으며, 이날 오후 7시48분에는 수하르토의 출생지인 족자카르타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승을 떠나고 싶지 않은 수하르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술라맛 잘란 뱉 하르토

[스피드뉴스]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례식이 28일 유족과 국내외 귀빈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다고 현지 일간 콤파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시신은 이날 낮 12시25분(현지시간) 고향인 중부자바 카랑안야르 지역에 위치한 가족묘지 ‘아스타나 기리방운’으로 옮겨져, 지난 1996년 사망한 부인 틴 수하르토 여사의 묘 옆에 나란히 안치됐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을 주관했고, 절차는 군(軍) 의례를 따랐다. 장례식은 수하르토의 시신이 도착한 후 밤방 수집도 대통령군사특보가 고인의 악력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최고의 국가 지도자이자 진정한 군인을 잃었다. 고인은 자신의 전 생애를 인도네시아 발전에 헌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넓은 아량으로 그의 오류



를 용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뻥 하르토(수하르토에 대한 존칭) 감사합니다. 개발의 아버지시여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장례식에는 수하르토와 틴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6명을 포함한 유족과 유습 갈라 부통령, 전현직 고위 관료, 외국사절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카르타 시민 수만명은 이날 새벽부터 거리로 뛰어나와 수하르토 자택에 있는 다나 거리에서 할림 공항까지 이동하는 고인의 운구행렬을 배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관공서뿐 아니라 해외공관 및 전 국민에게 수하르토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기를 내걸 것을 권고했다.

연말에 이어 금주도 연휴.. 2008년 Cuti bersama 일정

[스피드뉴스] 지난 연말 이슬람 아드하, 성탄절 및 신년으로 긴 연휴를 보낸 데 이어, 이번 주 목요일에 이슬람 신년(1/10)과 금요일 유급휴가대체(Cuti Bersama)로 연휴가 이어진다고 뉴스포털 더 콤이 7일 보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2008년 법정공휴일은 14일이며 Cuti Bersama는 8일이다.

▷ 2008년 Cuti Bersama

- * 1월11일(금) : 1월10일 이슬람 신년과 연결.
- * 2월8일(금) : 2월7일 음력설날과 연결.
- * 5월2일(금) : 5월1일 예수님승천일과 연결.
- * 5월19일(월) : 5월20일 부처님오신날과 연결.
- * 9월29일(월)30일(화), 10월3일(금) : 10월1~2일 이슬람피트리와 연결.
- * 12월26일(금) : 12월25일 성탄절과 연결.

2007년 자동차판매량 43만대

[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이 유가인상 충격에서 벗어남에 따라 2007년 자동차판매량이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434,000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가 7일 보도했다.

Toyota Astra Motor(TAM)의 영업책임자 조자나 조디는 2007년 12월 자동차판매량이 37,500~38,000대로 전년동기간의 31,177대보다 2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7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판매량이 업계가 예상했던 430,000대보다 약간 많을 것 같다. 2006년 자동차판매량은 318,904대였다.

한편 도요타 자동차 판매량은 12월에 13,950대로 전년동기간보다 42%가 증가했고, 2007년 전체 판매량은 150,624대로 집계됐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포상금 10억 루피아

[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으로 10억 루피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10억 루피아는 미화로 10만5천달러 가량이며 인도네시아에서 호화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인도네시아체육회(KONI) 리타 수보워 회장은 “금메달리스트에게 10억 루피아, 은메달리스트에게 5억 루피아 그리고 동메달리스트에게 2억5천만 루피아를 수여할 것이다”라고 7일 말했다.

체육회는 1996년부터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포상금 액수는 10년 전과 동일하다.

리타 회장은 “체육회가 현재 포상금을 지원할 후원자를 찾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인구대국이지만 올림픽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금메달은 최대 2개이므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토픽 히다얏이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찬드라 위자야와 토니 구나완이 각각 10억 루피아의 포상금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베이징 올림픽에 육상, 양궁, 배드민턴, 역도 및 수영 등에 40~6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印尼 일년에 설이 네 번... 종교적 관용.

[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에는 설이 네 번이나 된다. 방대한 군도를 통일하면서 단일언어를 채택한 대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9일 밤 자카르타를 포함한 전국의 이슬람사원에서 무슬림들이 무하람(Muharram) 새해전야 예배를 드렸다.

유습 갈라 부통령도 자카르타 관저에서 자신이 총재로 있는 골까르당과 인도네시아 이슬람선교위원회 대표들을 초청해 무하람 기도회를 가졌다고 국영 안파라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무하람은 ‘성스럽다’는 의미이며, 이슬람력의 첫 번째 달로 이슬람권에는 한 달 동안 싸움이나 전쟁을 금한다. 무하람 첫 날은 새해이지만 특별한 음식이나 풍속은 없고 다만 사원에서



코란을 독송하거나 기도를 올린다.

금년 무하람 새해는 양력 1월10일이고, 이슬람력은 1년이 354일로, 무하람달의 시작도 매년 10~11일씩 당겨진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적 관용을 상징하기 위해 종교 축일 즉 이슬람, 기독교, 불교 및 힌두교 축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양력설, 음력설, 이슬람신년 및 힌두신년까지 네 번의 설을 켜.

양력설은 실질적인 새해로 모든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종교축제보다는 성탄절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세속적인 행사가 주를 이룬다.

음력설은 임렉(lmlek)이라 불리며, 중국인들의 설이라고 알려져 있다. 금년 임렉은 양력 2월7일이다. 수하르토 집권 후 중국인 탄압정책으로 사라졌다가,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이 중국 문화 억압정책을 완화시키면서 부활했다.

과거에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설 분위기가 났으나 지금은 쇼핑몰이나 상점을 중심으로 시내 어디에서나 빨간색 종이에 쓰인 황금색 한자 “공시파차이(恭喜發財)”와 매화꽃, 버들가지, 금꺾을 볼 수 있다.

넬피(Nyepi)는 힌두교 설로, 금년에는 양력 3월7일이다. 넬피는 ‘침묵의 날’ 이라고 불리며, 새해로 넘어가기 전에 갖는 자기정화의 날이다.

이날 힌두교인들은 집에서 지내고 불을 켜거나 일을 할 수 없고 여행도 금지되는 등 엄격한 절제를 통해 내면의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발리는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어서, 이날 24시간 동안 외출이 금지되고, 교통수단도 두절되며, 항공기의 이착륙도 중단된다.

다만 관광지임을 고려해 호텔과 같은 허가된 지역에서는 불을 켜고 일상활동을 할 수 있으나, 타종교인들도 힌두교인들을 존중해 소란스런 행위는 자제한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5% 이상이 모슬렘이지만, 온건성향의 이슬람국가로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와의 조화로운 삶을 중시하고,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 대두 수입관세 인하 추진

[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대두(kedelai)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두 수입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안따라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마리 엘가 빵에스뚜 무역장관은 “수입관세를 현재의 10%에서 5~0%로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14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궁에서는 대두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두부와 땀땀 품귀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밖에서는 두부와 땀땀 생산자 3천여 명이 대두 가격안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두 가격이 지난 한 해 동안 100% 가량 급등했다. 이에 생산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4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대두 가격은 Rp 7,200/kg.

마리 장관은 관세인하 외에도 국내 대두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두 가지 방안 모두 경제조정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두의 주요공급원인 미국에서 대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 국제시장에서 대두 가격이 톤당 300달러에서 600달러로 급등했다.

최근 바이오연료 생산이 증가하면서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미국 농민들이 작물을 대두에서 옥수수로 전환하면서 대두 생산량이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대두 소비량은 연간 200만 톤인 반면 국내 생산량은 60~80만 톤에 불과하다.

안톤 아쁘리안토노 농업장관은 대두 가격안정을 위한 중기전략으로 수입국을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대두의 자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가에 대두 종자를 지원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2008년에도 농민에게 우수한 품종의 대두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발리 찾는 한국관광객 급증

[스피드뉴스] 지난해 발리를 찾은 한국관광객이 급증했다고 현지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발리 관광청은 발리를 찾은 한국관광객 수가 2006년에 7만9천명에서 2007년에 12만2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발리를 많이 찾은 외국관광객은 일본, 호주, 대만 순이고, 이어 한국이 4위로 부상했다.

발리는 2002년과 2005년 자살폭탄테러 이후 외국인들이 기피했으나 지난해부터 점차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리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153만명으로 지난해 동기기간보다 24.4%가 증가했다. 통상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관광객 30% 가량이 발리를 찾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8년을 ‘인도네시



아 방문의 해(Visit Indonesia Year 2008)'로 정하고 대대적인 관광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외국인관광객 목표를 지난해의 600만 명보다 25% 가량 많은 700만 명으로 목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 한 해 동안 100건 이상의 국제행사 및 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예산으로 1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일본, 호주, 한국 및 중국 등에서 관광홍보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발리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휴양지 겸 관광지로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연예인의 화보촬영장소로도 애용되는 곳이다.

미국 뉴욕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트래블 앤 레저' (Travel+Leisure)誌는 2007년 초 발표한 '2006 세계최고(World Best)'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휴양지로 발리를 선정하기도 했다.

족자카르타 술탄 “대통령 출마 의사 있다”

[스피드뉴스] 술탄 하명꾸부워노 10세 족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신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면 2009년에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16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하명꾸 부워노는 15일 다만시시와 대학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그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겠다는 정당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국민이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명꾸부워노와 수띠요소 전 자카르타주지사는 차기 대선에서 대안후보로 언급되던 인물들로, 두 사람 모두 출마의지를 밝힘에 따라 대통령직을 놓고 기존의 후보들과 경합을 벌이게 됐다.

앞서 투쟁민주당은 메가와티 수까르노뽀트리 총재를 2009년 대선을 위한 대통령후보로 지명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습 갈라 부통령은 골까르당 후보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각성당(PKB)은 자당이 고려하고 있는 대선후보 네 명 중 한 사람이 하명꾸 부워노라고 최근 밝혔다.

올 상반기 건축통화정책 예상

[스피드뉴스] 2008년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가 건축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적다고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를 인용, 17일 안따라통

신이 보도했다.

경제연구소 '이코닛(Econit Advisory Group)'은 올 상반기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갈 것이다. 하반기가 되어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닛의 연구원 라시앗 빠린두리는 “통화당국으로서 중앙은행이 2008년 인플레이션 목표 6.0%를 고수할 것이다”며,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8.0%를 유지할 것이다. 하반기에 가거나 기준금리가 약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닛에 따르면 금년에 세계적으로 곡물과 에너지 가격 인상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곡물과 에너지 가격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반면 식품과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현물시장에서 국제유가가 배럴 당 90달러 선을 넘긴 것이 이미 여러 차례이다. 지난해 평균 유가는 배럴 당 72달러였다.

한편 식량 특히 곡물가격이 2007년 말에 급등한 반면 현재 세계식량재고는 25년 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코닛은 최근 수개월 동안 국내 쌀값이 6~10%, 밀가루는 50% 그리고 대두는 100%가 인상됐으며, 금년 내내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2007년 말에 중부와 동부자와에 발생한 홍수로 곡물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08년에는 엘니뇨현상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특히 기초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금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민 대다수가 구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라시앗이 말했다.

외병 수하르토 傳記 ‘잘 나간다’

[스피드뉴스]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했던 수하르토(86) 전 대통령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전기(傳記)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지 TV방송 인도시야르 21일 보도에 따르면 종교서적을 파는 가게가 몰려 있는 자카르타 꾸위탕 지구에 위치한 헌책방 주인들은 수하르토의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를 찾는 손님들이 몰려들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아비 씨는 “지난 4일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입원하기 전에는 책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엔 책이 없어 못 팔 정도다”라며 “판매가격도 3배나 올려



15만루피아(약1만5천원)에 팔고 있다” 고 귀띔했다.

수하르토의 전기를 사기 위해 이곳을 찾은 아미르 씨는 “가격이 부담되지만 수하르토 일생을 되짚고 싶어 책을 샀다” 고 말했다.

수하르토 집권기에 인도네시아는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등 전체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수하르토 집권 말기 독재정치와 친인척의 부정부패로 업적이 퇴색하긴 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궁핍한 경제와 사회불안 등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에게는 그에 대한 향수가 커지고 있다.

수하르토는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 10년동안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언론과 국민의 조명을 받고 있다.

수하르토의 외출이나 입원은 항상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누가 문병을 오고 누가 명절에 인사를 갔는지가 화자된다.

실질적으로 수하르토는 하야 후에도 그의 각료들 중 상당수가 새 정부에 잔류하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6년 5월 여론조사기관 ‘서베이 인도네시아’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수하르토가 퇴진한 지 10년이 다 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의 상당수가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유럽운항금지 단계적 해제 추진

[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자국항공사 유럽연합(EU) 운항금지를 점진적으로 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주스만 샤피 자말 장관은 국적기인 가루다 인도네시아, 만달라 에어웨이, 프리미어에어 및 에어 패스트 등 네 개 항공사에 대해 우선 ‘안전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EU에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해체를 요청할 것이라고 EU 평가단과 합동으로 마련한 ‘항공안전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EU는 2007년 6월부터 안전도 미흡을 근거로 인도네시아 항공사 51개 모두에 대해 역내운항을 금지시켰고, 이후 세 차례의 평가가 있었으나 계속해서 기준에 미흡하다며 해제하지 않고 있다.

교통장관은 선택된 항공사 4개는 유럽에 취항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유럽 노선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만달라라 유럽에서 만드는 에어버스 항공기를 수입하기로 하고

주문한 상태이며, 프리미어는 유럽국가에서 항공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말 장관은 네 항공사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럽집행위원회 항공안전팀 대표 로버트 살바라니는 항공운항금지의 해제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컨퍼런스는 항공안전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고 말했다.

2007년 1월에 아담에어 소속 항공기가 술라웨시 해역에 추락해 102명 전원이 사망했고, 3월에는 족자카르타에서 가루다항공기가 추락해 21명이 사망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EU가 지난해 6월부터 역내운항금지를 발효했다.

EU는 2006년 3월부터 안전미달항공사 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됐다. 대형항공사고가 잇따르자 역내 25개국의 항공안전을 위해 안전도가 낮은 항공사의 취항을 금했다.

사료값 급등… 양계업자 울상

[스피드뉴스] 육계용 배합사료값과 병아리 가격이 급등하자, 양계업자들이 생산비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일간 포매스가 30일 보도했다.

서부자바주 수까부미 군지방정부의 수실로 부디 축산과장이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배합사료가격이 kg당 종전에 3,000루피아에서 4,400루피아로 47% 인상됐고 생후 하루된 병아리(day old chicken/DOC)는 종전 2,000루피아에서 2,500로 25%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산비는 kg당 9,100루피아로 상승했고 육계출고 가격은 8,600~9,300루피아로 채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까부미 지역은 하루 120만 마리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가장 많은 육계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하루 60만~80만 마리를 공급하고 있다.



Han Gang

한강

한국요리의
출발지~

(021) 7278 7802, 7278 7789

Jl. Wolter Monginsidi No. 99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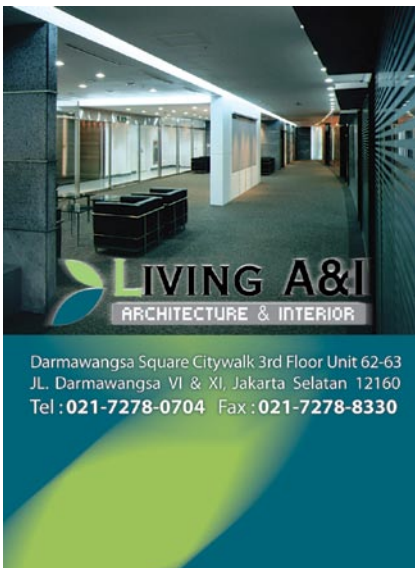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 및 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	721	0271~2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 **렌터카/기사클럽**

우리 렌터카	081	119 3069
한성 렌터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JR SALON	7279	7906
컨덤	7279	2067~8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루루 부동산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	-----	------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 546 0844
우리슈퍼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 5289 7044
기존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서라벌 572 3475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핫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 신문, TV

동아일보 720 6802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8983 1908
벼룩시장 5290 0040
좋은느낌 452 5655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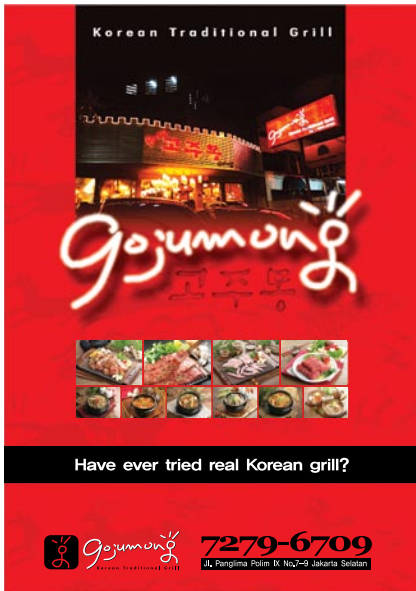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Korean Traditional Grill

Gojumbo

Have ever tried real Korean grill?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광고문의
521-2515

여명 9955 5859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리 앤 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뿐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환전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발리 (지역번호 0361) ↓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KAYA TOUR

DongWha tour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UNDA DUTA
SATYA TOUR 283 305
RED CAP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구점)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궁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다진+재영의 가끔 뜨겁고 자주 격렬한 연애에 관한 모든 것!

6년 전 그 때, 너무 좋다! 연애?

캠퍼스 동아리 커플로 시작된 사랑. 데이트 끝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힘겹던지. 사무치는 아쉬움을 '기슴 뽀뽀'로 달래던 그 시절, 서로의 어깨에 기대면 모든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있잖아” ♡ “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연애질 6년 차! 사랑하는 데 돈 안 든다? 실속파 이웃 사촌!

탁월한 경제성과 사생활 보호, 거기에 공공의 즐거움(?)까지 일석 삼조의 노하우를 지닌 영리한 커플이 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 서로 좋아하는 체위까지 몸에 밴 두 사람 '재영'과 '다진'은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쿨한 6년차 연애질을 시작한다. 베란다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모텔보다 아늑한 침대도 두 개, 거기다 생리대 심부름까지 바로바로 OK! 그러나.. 이제 니 살이 내 살 같고, 내 살이 니 살 같다.

“내가 투명인간이야?” ㄷ “우린 침대에서 XX만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 우리 내공이 그런 거 아냐?”

6년째! 연애중?! 사랑일까? 의리일까? 습관일까?

장기 연애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연애 지침서를 히트시킨 베스트 셀러 기획자 다진은 서른 전 팀장 입성을 코 앞에 두고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한다. 지리지 공장 떠는 친구들의 애정 상담 전문가로도 손색 없는 홈쇼핑 PD 재영도 남 부러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 서른을 앞 둔 다진과 재영에겐 그러나 남 모를 불만이 쌓여가고, 연애도 6년이면 의리로 한다는 재영과 자기 인생은 회사와 재영 밖에 없다며 불안에 하는 다진. 그들의 사랑이 내년에도 처음처럼 뜨겁기만 할까? “너 나랑 있으면 행복해?” vs. “우린 이미 사랑하는 친구잖아?”

빨간 풍선

Flight of the Red Balloon

어느 날, 삶이 서툰 두 모자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

파리에 살며 중국 정통 인형극을 제작, 연기하는 전문직 여성 수잔(줄리엣 비노쉬)은 일곱살 짜리 아들 시몽을 둔 이혼녀.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잡은 그녀이지만 집안일이나 이웃 간에 벌어지는 일상다반사에는 마냥 서투르기만 하다. 그런 그녀의 아들 시몽 역시 삶이 여수선하기는 마찬가지. 가끔 하늘을 둥둥 떠다니며 잡힐 듯 결코 잡히지 않는 '빨간 풍선'이 유일한 친구이던 시몽에게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생겼다. 중국 유학생 송팡이 새로운 베이비 시터로 온 것이다!



나는 조선이다

-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대왕 세종

저자 이한 | 출판사 청아출판사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대왕의 시대

〈나는 조선이다〉는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대왕의 업적을 살펴보는 책이다. 지금 우리가 조선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세종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개성 강한 신하들을 거느린 왕이었던 세종은 그들의 불평불만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학식을 지닌 군주였으며, 그 풍부한 학식으로 인재를 활용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세종과 여러 신하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종의 업적을 되짚어보며, 세종의 성격과 리더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어린 시절의 세종부터 세종이 승하한 후에 변화한 조선까지, 세종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그의 성격부터 가족들, 신하들과의 관계, 눈부신 업적 등을 살펴보며 이런 위대한 업적이 이후 세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까지 고찰한다.

또한 세종의 말년은 물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널리 알려진 인자한 왕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교활하고 독선적으로 신하들을 휘둘렀던 세종의 또 다른 면모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이 버린 여인들 - 실록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 손경희 | 출판사 글항아리

조선시대 하층민 여성들의 삶을 복원하다

〈조선이 버린 여인들〉은 조선시대 하층민 여성 33인의 삶을 다시 살펴보는 책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부터 성종 대까지의 기록에 등장하는 하층민 여성들에 관련된 사건과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남자는 물론 같은 여자들에게조차 상처를 받으며 사회의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아간 조선 하층민 여성들의 삶을 다룬 최초의 교양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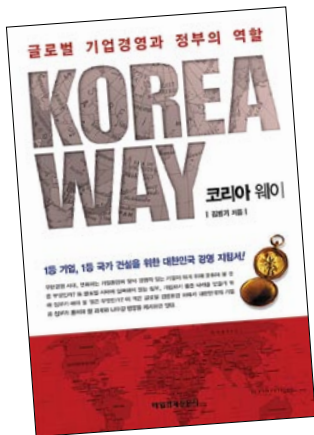
이 책은 하층민 여성들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각자 주인공이 되는 33건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한 인물에 한 장씩 할애하여 총 33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간 중간에 당시의 시대상을 짚어보는 '깊이읽기'를 수록하였다. 노비, 기녀, 첩, 비구니, 무녀 등의 하층민 여성들이 사회와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내밀한 개인사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기존에 소개된 인물들은 물론, 처음 그 존재가 알려지는 여성들도 등장한다. 저자는 관련 시대자료를 조사하고 사건의 전후 과정을 추적하여,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하층민 여성들의 삶과 내면세계를 유추하고 복원하였다. 간통, 살인, 사기 사건 등과 같은 온갖 분쟁들을 파헤치며 그 속에 숨겨진 하층민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 주고자 했다.





코리아 웨이 - 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

저자 김병기 |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코리아 웨이』는 글로벌 경영환경 하에서 대한민국의 기업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맞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 글로벌 시대에 실패하지 않는 정부 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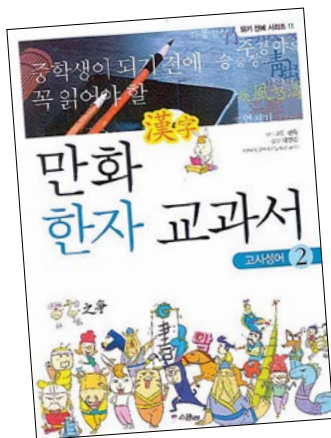
저자는 우리의 미래 방향, 즉 ‘코리아 웨이’의 핵심가치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정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글로벌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통찰한다.

먼저 ‘선택과 집중, 전략적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지속적인 창조경영 추구, 글로벌 브랜드 육성, 윤리경영과 핵심가치의 관리’ 등을 기업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후, 글로벌 경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관계, 국가경쟁력의 제고, 정부의 역할 등을 차례대로 논의하였다.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읽어야

| 만화 한자 교과서 2: 고사성어 | 되기 전에 시리즈 11

저자 권욱 | 감수 박원길 | 출판사 스콜라



학습 만화 『만화 한자 교과서』 시리즈 제2권 《고사성어》. 이 시리즈는 예비 중학생을 위한 학습 만화로, 중학교에서 배워야 할 기초 한자가 알차게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선행 학습 도서로서 안성맞춤이다. 2권 〈고사성어〉는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고사성어 133개를 다양한 에피소드로 재미나게 배우도록 구성했다. 해당 고사성어마다 뜻풀이와 비슷한 말, 반대말, 예문 등이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됐다. 읽는 독자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함께 고사성어를 익히면서, 한자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 몸 내가 고치는 | 기적의 밥상

저자 조엘 펠먼 | 역자 김재일 | 출판사 북섬



『내 몸 사용설명서』의 저자 메트 오즈 박사가 강력 추천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

20년 동안 2천 건이 넘는 연구와 임상 자료를 통해 정리한 이 시대 최고의 건강 바이블! 제대로 알고 먹는 방법을 담은 『기적의 밥상』. 이 책은 질병의 치료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과 바른 다이어트 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담았다. 세계적인 영양학자이자 의사인 저자가 5천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 상담하고 처방해 준 건강 처방전과 요요 현상 없이 안정된 평생 건강 플랜을 소개한다.

《기적의 밥상》은 매일 먹는 음식 속의 해답과 많이 먹어도 몸이 부실한 이유, 피토케미컬 요법과 동물성 단백질의 해와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 본격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6주 플랜으로 구성했다. 책 뒤편에는 한국인의 식단에 맞는 일주일분 추천 음식 플랜도 들어있다.



2월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변경 안내

2007.11.19부터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http://www.mofat.go.kr/indonesia>

변경후 : <http://idn.mofat.go.kr>

자카르타 홍수피해 유의

1. 최근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에 계속되는 비로 인해 보고르 찰리웅강의 바로미터인 남부자카르타 망가라이 수문의 수위가 안전수준을 넘어 830cm까지 상승해 3급 경계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찰리웅강의 범람으로 동부자카르타 Cawang 지역과 Kampung Melayu 지역이 1 ~ 2m가량 침수되었습니다.

2. 주재국 지질기상청은 1월 ~ 2월 자카르타에 홍수 발생 가능성을 경고, 상습 침수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남부자카르타 : Mampang Prapatan, Pasar Minggu, Kebayoran Baru, Tebet.

◎ 북부자카르타 : Kelapa Gading, Koja, Pademangan, Penjaringan, Tanjung Priok

◎ 서부자카르타 : Cengkareng, Kalideres, Kedoya, Ciledug.

◎ 동부자카르타 : Cipayung, Kramat Jati, Makassar, Ciracas.

◎ 중부자카르타 : Kemayoran, Senen, Menteng, Tanah Abang.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철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물론 여행중인 우리 국민들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 요령” : 질병관리본부 제작

상공회의소 주간 소식 및 세무상담 안내

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상공회의소 주간 소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소식에는 한 주간 인니 일간지의 경제관련 주요 기사 및 상공회의소에서 전하는 소식 등이 포함됩니다.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kocham@cbn.net.i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세무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상공회의소로 연락주시면 사전 약속 후 국제청 자문위원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문의 내용을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인니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1. 한-인니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이 07.11.16 발효하였다.

○ 2000.11.28 서명된 동 조약은 한국측이 2001.11 비준하였고 인니측이 2007.10.23 비준하였음을 2007.11.16 한국측에 통보해 오에 따라 동 통보일로부터 발효하게 된 것이다.

2. 동 조약(전문 및 본문 21개조)은 양국의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방 국가에 도피하여 있는 범죄자를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요청 상대방에 인도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동 조약의 체결을 통해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문제에 있어서 한-인니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4.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8개국(발효 21건, 미발효 7건)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있다.

여권분실 주의 안내

1. 최근 대로변에서 손상된 차량 타이어 교체도중 오토바이를 이용한 강도가 차량안의 여권이 든 가방을 탈취,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소지품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난, 분실된 여권은 국제범죄 테러조직들이 여권/사증 등을 위변조하여 국제범죄자의 신분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여권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소급적용 관련

1.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인니측의 발효지연으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되어 있으나, 인니 일선 세관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사관 경제팀(김형태 참서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Tel 520-1915, Fax 525-4159

3. 아울러, 당관은 인니 재무부와 함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오며, 상세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에다 테러 위협 유의

최근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이라크 이슬람 국가(ISI)’는 성명을 통해 한국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식기구인 ‘알샤함’을 통해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등으로 동 성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시범적인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1. 인도네시아 한인회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4시 (1시간)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Tel. (021)525-5959

2. Kotra Jakarta 무역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2시간)

GKBI Building 21층

Jalan Jenderal Sudirman No. 28,

Jakarta Selatan

Tel. (021)574-15222(교)

3. 한인연합교회

매주 주일 10시 45분 - 12시 (1시간 15분)

교육관 상담실

Jalan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MP. 0816-1911245

*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 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

(YSM & PARTNERS 대표변호사)

휴대폰 : 0816-191124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침부)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720-3246
HP. 0816-873-176

대한항공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 / 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 서울	21:55 / 06:45 +1	매일
KE627	서울 > 자카르타	15:20 / 20:30	매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0:50 / 08:40	화,목,금
KE629	서울 > 덴파사르	17:20 / 23:30	월,수,목
KE630	덴파사르 > 서울	03:40 / 11:30	월
KE629	서울 > 덴파사르	20:10 / 02:20 +1	일

2. 기간: 2007년 10월 28일 ~

3. 전화번호: 021) 521-2175 / 2176 / 2177 / 2180

4. Fax 번호: 021) 521-2184 / 521-2179

5. E-mail: hyunmelee@koreanair.com(한국어)
stuty@koreanair.com (영어/인니어)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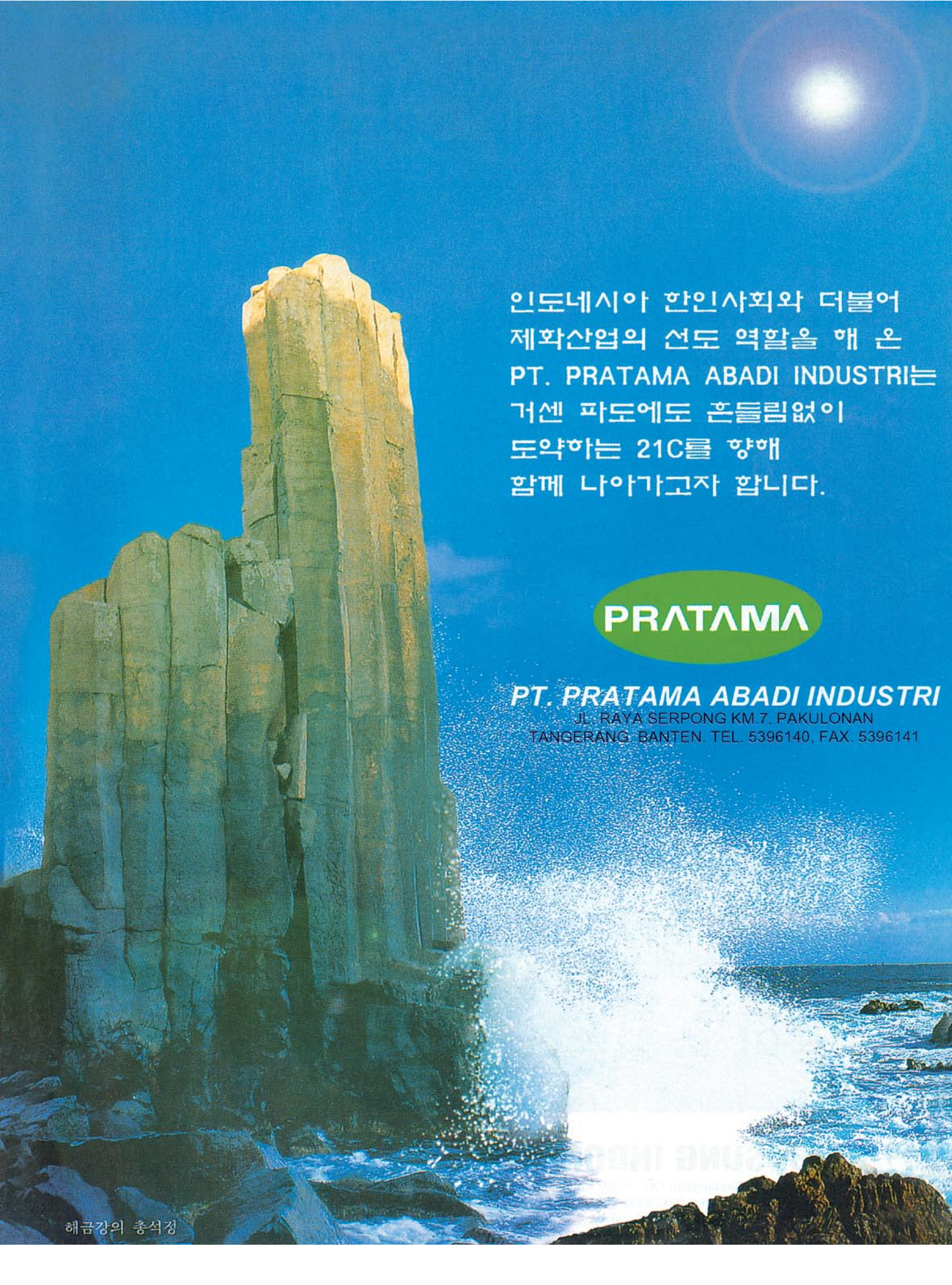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Garuda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 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www.garuda-indonesia.com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선도 역할을 해 온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도약하는 21C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JL. RAYA SERPONG KM.7, PAKULONAN
TANGERANG, BANTEN. TEL. 5396140, FAX. 5396141



외환은행만이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있는 알고 보면 참 편리한 서비스

첫째. 언제든지 간편하게 대출 및 상환이 가능한 **외환은행 당좌대출(마이너스 대출)**

⇒ 약정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여유 있으면 언제든지 갚고

둘째.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은행업무가 가능한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 은행간 송금(달러, 루피아), 한국송금, 계좌간이체, 달러⇔루피아 우대환전(계좌간)

셋째. 목돈 만들기의 첫걸음 **외환은행 정기적금**

⇒ 매월 일정액을 적금으로 불입 (자동이체가능)

넷째. 한국계 은행 유일의 지점망 **씨까랑지점**

⇒ 은행 모든업무가 지점에서도 가능

인도네시아  **외 환 은행**

TEL : 021) 574-1030, Jakarta Sudirman에 위치한 GKBI 빌딩 20층